

WONIKIN

SUMMER

소통을
넘어: 준중과 배려

WONIK GROUP MAGAZINE
2018 VOL. 55

WONIKIN

SUMMER

소통을
넘어: 준중과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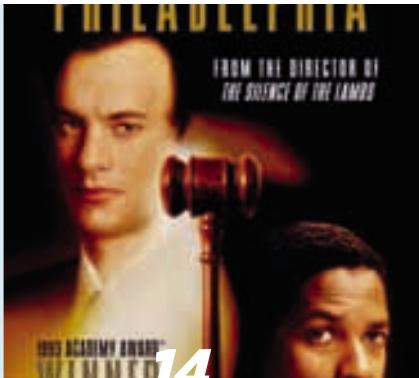
WONIK GROUP MAGAZINE
2018 VOL. 55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의 반대를
‘듣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말할 차례를 기다릴 뿐이다.”

미국의 비평가 ‘프란 레보비츠(Fran Lebowitz)’의 말입니다.
대화할 때 이러한 태도는 상대와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통의 전제조건은 ‘듣기’인데, 듣는 행위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호에서는 원익의 핵심가치 ‘소통: 존중과 배려’를 통해 원익인들의
소통에 대한 생각을 읽어보며, 내가 느낀 ‘소통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원의그룹 사보기자단

원익홀딩스 소병오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원의큐엔씨 이민희 테라세미콘 최예란

원익 이기복 원익큐브 윤세현 씨엠에스랩 박지현

위닉스 안희태 원익로보틱스 윤준호

원익엘엔디 최세현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원익투자파트너스 윤용인

사보담당자 이호철, 서재원, 안예인



18



44



24



52



84



60

WONIK iN

WONIK MAGAZINE
#55 SUMME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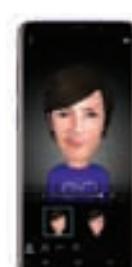
원익 사보 2018년 여름호
원익인 통권 제 55호

발행일 2018년 7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의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ntents

- | | |
|--|--|
| <p>04 SPECIAL THEME
존중과 배려의 소통, 한다면 코너트처럼
Douglas Conant</p> <p>08 BETTER TECH 1
양자컴퓨터 시대와 메모리 골디락스</p> <p>14 공감 라운지
사회적 편견과 외로운 도전, 그리고 인류애
원익테라세미콘 서태웅 부사장</p> <p>18 WONIK WORLD
숫자와 키워드로 알아보는 2018 월드컵</p> <p>24 BETTER TECH 2
이모티콘, 감정을 소통하다.</p> | <p>WIDE</p> <p>64 특별한 강의 1
축적의 시간, 스케일업 혁명</p> <p>68 특별한 강의 2
Upgrade에서 Upgreat로의 전환</p> <p>72 원익은 지금 ❶ 원익
인식의 변화를 불러온 모나리자 터치</p> <p>78 원익은 지금 ❷ 씨엠에스랩
우리들의 리그, 핫여름의 스트라이크</p> <p>84 원익은 지금 ❸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의 속원, DS 연구동 완공</p> <p>90 원익은 지금 ❹ 원익아이피에스
GEMiNi 100호 출하, 원익의 기술경쟁력을
상징하다.</p> <p>94 행복일터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다.</p> <p>96 NEWS FOCUS</p> <p>118 THANKS FOR YOU</p> <p>119 EDITOR'S LETTER</p> |
|--|--|
- DEEP**
- 32 **WONIK HERO**
‘그 이상의 GEMINI’를 위한 환상적
Partnership
- 38 **그뤠잇 팁**
자유와 소통으로 만들어 낸 화학적 시너지
원익큐브 화학사업부 무역팀
- 44 **밥 한 번 먹어요**
배려심 깊은 다섯 남자의 ‘생산’적인 저녁식사
- 50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투자파트너스 김호성 팀장 & 오윤진 과장
- 52 **MENTORING**
사무실에서 펼치는 두 남자의 드라이브
원익큐엔씨 김동현과장 & 정지형 사원
- 58 **명작예찬**
빛의 확산의 경이로움
- 60 **팔로미**
여름을 즐기는 축제



존중과 배려의 소통, 한다면 코넌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나 더글러스 코넌트는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한다. 존중과 배려로 만든 소통이 진정한 경쟁력을 불러오는 법이라고. 그는 나락으로 떨어진 미국 식품기업 캠벨(Campbell)을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의 경영철학이 옳았음을 당당하게 증명해 냈다.



Douglas Conant(1951-)

©GOOGLE

캠벨의 구원투수로 나서다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은 1962년, 이른바 '캠벨 수프 시리즈'를 선보였다. 캠벨 수프 깡통을 그대로 본뜬 그의 대표적 작품군이다. 워홀은 대량생산과 소비의 행태를 풍자하기 위한 소재로 캠벨 수프 깡통을 택했다. 당시 1년에 100억 통이 팔려 나갔다고 하니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정. 미국 식품기업 캠벨의 위용은 이 정도로 대단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캠벨 천하'는,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 웰빙(Well-being) 열풍이 불면서 소비자들이 대량생산 가공식품 대신 자연친화적 먹거리를 찾기 시작한 것. 경영난에 허덕이던 캠벨은 또 다른 식품기업 나비스코를 성공적으로 되살린 '회생의 귀재' 더글러스 코넌트를 CEO로 영입한다. 2001년 1월의 일이다.

그 무렵 캠벨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1998년 63달러였던 주가가 3년여 만에 31달러까지 떨어졌다. 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친 지 오래. 당연히 일을 맛이 날 리가 없었고, 이는 낮은 업무 몰입으로 이어졌다. 당시 갤럽이 조사한 캠벨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는 2대1. 직원 3명 중 1명은 일하지 않고 빈둥대고 있다는 의미로,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최하위였다. 코넌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국 경제계의 이목이 그에게로 쏠렸다.

존중심을 담은 30,000통의 손 편지



전문가들은 코넌트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치열한 경쟁체계를 도입할 거라 예상했다. 부진에 빠진 기업의 수장으로 영입됐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하지만 코넌트는 의외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신뢰'와 '존중'이다.

코넌트는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와 경영진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하루 아침에 생길 수는 없는 일. 그는 구성원들의 믿음을 구하는 수단으로 존중을 택했다. 잘잘못을 가려내는 대신 칭찬거리를 찾고, 이를 통해 직원 개개인과 직접 소통하려 부단히 애썼다. 오죽하면 '메일함과 사내 웹사이트에서 직원들 칭찬거리 찾기'가 그와 비서의 주요 일과 중 하나였다고 할 정도다.

코넌트는 힘들여 찾아낸 직원들의 장점과 칭찬거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첫 번째 방법은 '편지'다. 코넌트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직원 개개인에게, 하루에 10~20통씩 편지를 썼다. 그것도 간편한 이메일이 아닌 손 편지로 직접 말이다. 직원들에게 존중심을 표현하는 데 자필 편지만 한 게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더불어 그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편지지를 채우는 대신 직원 개개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 넣었다. 캠벨 CEO로 있었던 10년 동안 그가 쓴 편지는 무려 3만 통. 캠벨의 총 직원이 2만 명이니, 1인당 최소 한 통씩은 코넌트의 편지를 받은 셈이다.

COMMUNICATION

일상 속에서 실천한 소통과 배려

그런가 하면 코넌트는 만보기를 차고 다니는 CEO로도 유명하다. 남들은 운동하기 위해 만보기를 차지만, 그는 자신이 사내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만보기를 사용했다. 운동화를 신고 하루에 1만 보씩 회사 곳곳을 걸어 다니며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이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직원들을 칭찬하고,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일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를 생생한 목소리로 들었다. 그리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했는데, 이것이 바로 코넌트 특유의 ‘걷기 경영(Managing by wandering around)’이다.

열린 소통을 위한 코넌트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6주에 한 번씩 직원들을 초대해 이른바 ‘점심 토론’을 벌였는데, 여기에는 원칙 두 개가 있었다. 첫째, 신입사원부터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급을 섞어서 자리 를 만들 것. 둘째, 점심을 먹으며 나눈 언행은 이 자리를 벗어난 이후 거론하지 말 것. 덕분에 직원들은 스스럼없이 속마음을 이야기했고, 코넌트는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다.

코넌트는 회사 곳곳에서 직원들과 마주치는 시간, 일명 ‘터치 포인트(Touch point)’도 허투루 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이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도와줄 게 없나요?(How can I help?)” ‘리더는 자신이 얻을 것보다 구성원들에게 줄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행동으로 옮긴 것.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배려심이 돌보이는 대목이다.

즐겁고
따뜻한 사회,
우리 모두가
만든다

CEO가 움직이자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캠벨에 깊이 뿌리내렸다. 코넌트의 편지를 책상 한편에 붙여놓은 그의 열린 소통에 감동한 직원들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했으며, 마음을 전하고 싶은 선후배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 덕분에 캠벨 직원들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일에 몰입할 수 있었다.

코넌트도 한때는 회사원이었다. 여느 사람들처럼 다사다난하게 직장생활을 해나갔다. 그는 그 30년 세월 중 CEO에게 두 통의 편지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회고한다. 회사와 CEO, 그리고 동료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마음이 뿌듯했다고. 이 같은 기억은 그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캠벨에서의 존중과 배려의 소통으로 발전했다. 캠벨 직원들이 코넌트에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문화를 이어받았듯, 코넌트도 어느 CEO와 조직으로부터 상호존중의 정신을 물려받았던 것. 존중과 배려의 문화, 그 따뜻한 힘은 이렇듯 주변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배가되기 마련이다.

‘정중한 리더십’으로 일컬어지는 더글러스 코넌트의 경영철학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를 통해 활발하게 오가는 열린 소통이 두루 담겨 있다. 그 힘이 몰락해 가던 기업을 다시 일으켰고, 2만 명의 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를 선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려와 존중의 소통은 코넌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따뜻하고 즐거운 일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존중과 배려, 열린 소통에는 그런 힘이 넉넉하게 담겨 있다. **W**



TO WIN IN THE MARKETPLACE, YOU MUST FIRST WIN IN THE WORKPALCE.

- Douglas Conant



존중·배려 지수 진단 체크리스트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1. 다른 사람을 돋는 것을 즐거워한다. -----
2. 자신의 차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
3.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비방하지 않는다. -----
4. 판단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
5. 문제를 평화롭고 정당하게 해결하려 노력한다. -----
6. 승패에 상관없이 훌륭한 스포츠맨십을 보이려 노력한다. -----
7.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위해 기꺼이 타협한다. -----
8. 기꺼이 내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
9.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
10. 다른 사람을 평등하고 정당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

총점으로 진단 결과

총점우수: 41~50점
보통: 34~40점
노력 필요: 21~33점
적극적 노력 필요: 10~20점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극복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수퍼컴퓨터의 거대화와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IT기업들이 양자컴퓨터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는 양자컴퓨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 간의 기술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시대와 메모리 골디락스



Quantum Computer and Memory Goldilocks

1

양자컴퓨터, 현실이 될까

세상을 바꾸는 기술, 그 기술 구현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은 상상력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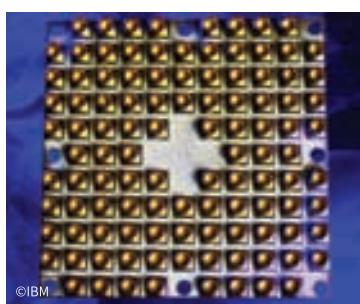
쥬라기 공원의 원작자 마이클 크赖튼(John Michael Crichton)은 1999년 소설 ‘타임라인(Time Line)’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공간이동과 타임머신을 얘기했다.

“만약 당신이 1899년의 물리학자에게 100년 후에는 움직이는 영상이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타고 세계 전역에 송출될 것이라 한다면, 또 몇백그램도 되지 않는 무선 전화기를 통해 어느 장소에서 건 세계 어느 곳의 누구와도 통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당신이 미쳤다고 단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상은 100년 후 틀림없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타임라인의 도입에 담아낸 작가의 신념처럼, 소설 속에서 자유롭게 펼치던 상상력이 연구의 단초가 되고 이제는 서서히 실체적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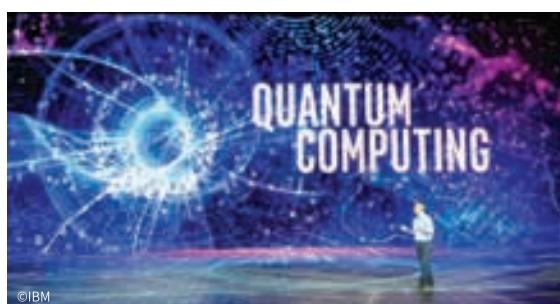
IBM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양자 컴퓨터 개발과 기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8에서는 인텔이 49큐비트 양자프로세서인 텐글레이크(Tangle Lake)를 전격 공개했다.

‘설마 되겠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양자 컴퓨터는 이제 소설 속의 미래가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게 된 것이다.

인텔이 CES 2018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발표한 49큐비트 칩의 모습. 구글 또한 72 큐비트 칩의 최근 개발에 성공했다.



©IBM



©IBM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기억소자로 활용하여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첨단 미래형 컴퓨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로, 최신 가전제품과 기술을 읽을 수 있는 행사

트랜ジ스터(Transistor): 반도체를 이용하여 전기 신호를 증폭·제어·발생하는 데 사용하는 소자

집적(Integrate): 모아 쌓는 것

큐비트(Qubit): 디지털 컴퓨터의 ‘비트(bit)’에 해당하는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

골디락스(Goldilocks): 경기 변동이 크게 없으면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장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

2

진화는 위기가 된다

컴퓨터가 발달한다는 것은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더 빠른 컴퓨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Integrate)*해야 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컴퓨터의 성능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트랜지스터의 소형화는 이제 양자역학적 한계점에 와있다. 트랜지스터 회로의 선폭이 한계 수준 이하로 가늘어지게 되면서, 회로 내에 있어야 될 전자들이 회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터널링 효과가 발생한다. 이 터널링 효과로 트랜지스터에 담겨 있는 정보는 신뢰성을 잃게 되고, 반도체 회로는 정확한 연산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반도체 기술은 이 같은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억제하면서, 고전 물리학적 시각에서 전자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미세공정으로 인해 트랜지스터에 담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어, 터널링 효과로 인한 에러를 더 이상 막아내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양자역학 특성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진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현존 최고 성능의 수퍼컴퓨터보다 무려 1억 배 빠른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꿈의 컴퓨터’로 불려 왔다. 양자컴퓨터의 연산 속도는 어떻게 빠른 걸까?

미국 빅데이터 전문 연구소인 API의 창립자 버나드 마는 양자컴퓨터의 기본 정보 단위인 큐비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 처리 공간을 구(球)로 묘사했다. 현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비트는 0과 1 중 하나로 정보를 표현한다. 디지털 컴퓨터에서 0과 1은 구의 양쪽 끝에만 존재하지만, 큐비트는 구 위 아무 곳이나 임의의 한 점에 존재할 수 있다. 즉 0과 1 두 가지가 중첩돼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로 양자의 중첩성 원리이다. 이로 인해 큐비트가 늘수록 양자컴퓨터의 연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한다. 큐비트 2개는 동시에 4개(2의 제곱) 상태를, 큐비트 4개는 동시에 16개(2의 4제곱)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컴퓨터는 계발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다. 그중 현대의 암호화 기술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는 논란은 기정사실화된 듯하다. 예를 들어 브루트포스 공격이라면 어떨까? 브루트포스 공격이란 해커들이 맞는 비밀번호가 나올 때까지 무작위로 아무 번호나 대입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또한 컴퓨터를 써서 자동으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양자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브루트포스 공격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것.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양자컴퓨터 성능은 계속 높아질 테고 언젠가 모든 암호를 쉽게 깨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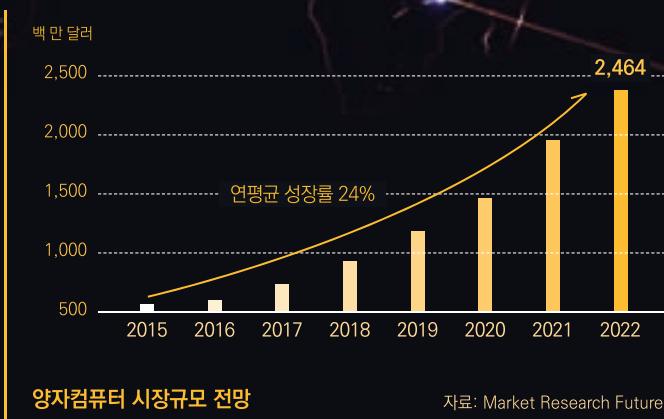
분류	정보 단위(튜피트) 구현 방법	특징	대표적 연구팀
이온트랩	수소나 칼슘 등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한 양이온의 에너지 상태	개별 큐비트 조절이 쉽다. 올해 4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 연구팀이 20개 이온으로 성공	미국 듀크대, 중국 칭화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 한국 SKT 등
초전도	초전도체 내부에 이물질을 끼운 ‘조지프슨 접합’의 전자쌍 전하 또는 흐름 방향	집적화가 잘돼 세계적 기업들이 연구 중이다. 50~70개 이온으로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다.	IBM, 구글, 인텔, 네덜란드 델프트대,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등
광자	빛의 편광 등	양자통신 등과 연계하기에 유리	KIST 등(광자-다이아몬드 방식 융합)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내부 불순물(질소) 주위 공간의 전자 스핀 상태	고체를 이용한 큐비트	영국 옥스퍼드대, KIST 등(광자-다이아몬드 방식 융합)
반도체	양자점	후발주자지만 최근 기술 도약 중	IBM, 미국 프린스턴대, 네덜란드 델프트대, 서울대 등

Quantum Computer and Memory Goldilocks

3

현실과 꿈 사이

마켓 리서치 퓨처에서는 2022년 양자컴퓨팅 산업의 시장 규모를 24억 6,4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디웨이브 시스템즈, 리게티 등을 비롯한 많은 IT기업들이 양자컴퓨터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일부는 50큐비트급 양자 프로세서 개발을 목표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계의 질주와는 달리 학계에서 양자컴퓨터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거나 보수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양자컴퓨터에서 칩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면 무한대로 큐비트 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큐비트의 규모를 키우려면 특별한 환경이 필요하다. 양자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할 때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중첩이 중요한데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절대 온도 0도(섭씨 영하 273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회로나 진공에 원자들을 가둬야 한다. 초전도는 저항 없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상태이다. 양자 중첩의 원리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외부 환경과는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한다. 외부 에너지(열)가 작용할 경우 양자 중첩이 깨질 수 있다.

이 같은 난제때문인지 현재 구글, IBM 등 각 기업도 무작정 큐비트를 늘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양자 중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큐비트 규모가 커질수록 양자 중첩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 회로로 양자컴퓨터용 프로세서를 제작한다. 따라서 여전히 양자컴퓨터가 과연 언제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자컴퓨터 및 이와 연계된 파생 분야의 발전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이다.

양자컴퓨터 시대와 메모리 골디락스*

양자컴퓨터는 메모리를 적게 사용해 연산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 사용 중인 D램 및 낸드 등의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양자 기술을 통해 그동안 기존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웠던 난제가 대거 풀리면서 이전에는 없던 추가적인 컴퓨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현존하는 디지털 컴퓨팅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W



원익테라세미콘 서태욱 부사장

레트로 감성속으로

영화<필라델피아>

1993/ 감독 조나단 드미 / 출연 톰행크스, 덴젤워싱턴

All human beings
are equal.

사회적 편견과 이에 대한 외로운 도전, 그리고 따스한 인류애를 그리다.

영화 <Philadelphia>

아주 오래된 영화이지만 나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인간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에이즈 환자이자 동성애자로 주연한 법정 영화인 바로 “Philadelphia”입니다.

지금은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 감염경로가 비교적 정확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으로는 감염이 어려운 전염병이며, 당뇨병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전 세계가 인류의 마지막 전염병으로 에이즈 전염이 되면 곧 죽음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마약, 동성애, 양성애 등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적 편견이 지배하던 시대에 만들어졌고 어쩌면 그 당시의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강렬한 편견의 소유자였습니다.

가장 징했던 장면은 후반부에 주인공(톰 행크스)이 그렇게(동성애자) 태어난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는 장면과 외롭고 고독한 싸움에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듯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Cavallenia Rusticana”의 간주곡을 들

으며 한없이 눈물 흘리던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처절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반성과도 같은 가슴 저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한 사람의 동성애자에 관한 사회적 편견으로 시작되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사회적 편견이란 학연, 지역, 경제적 부의 수준, 사회적 계급, 다수의 횡포, 갑을 관계 등의 나열하기 힘들 만큼 우리 주위에서 만연하다는 사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혹시 특정인, 특정 사안, 특정 환경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래서 타인에게 불명예롭게 행사하는 건 아닌지 가끔씩은 자신을 둘러보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 스스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차별조차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영화였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그들의 장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의 동질감에 기초를 둔 공식
화된 생각이야 말로 차별 대우의 본질이다.”

영화의 말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살면서 꼭 새겨 두어야 할 문장으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W**

글. 원익테라세미콘 서태욱 부사장



타인에 대해서

그들의 장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동질감에 기초를 둔

공식화된 생각이야 말로

차별 대우의 본질이다.

<Philadelphia>

이 영화는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사회의 편견 때문에 좌절을 맛봐야 했던 동성애자 변호사의 이야기.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앤드류(톰 행크스)는 중요한 사건을 맡지만, 공교롭게도 그 무렵 에이즈로 인한 이상증세가 나타난다. 앤드류는 많은 사건에서 승소해 회사에 이익을 안겨줬지만, 회사는 에이즈 환자인 그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지만 앤드류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라고 믿고, 힘들지만 이를 바로잡으려 애쓴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든 싸움을 시작한다.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흑인 변호사 조(덴젤 워싱턴) 역시 처음엔 거절하지만, 앤드류 역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를 기꺼이 돋기로 이른다.

영화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조나단 드미 감독은 에이즈에 걸린 변호사의 실화를 영화화한 <필라델피아>(1993)를 통해 에이즈 문제와 이를 둘러싼 차별 문제를 잘 묘사했다. 톰 행크스는 이 영화로 1994년 그의 첫 오ска르로 피를 수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영화제 골든글로브에서도 남우주연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편견과 오해, 차별에 대해 다시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차원적인 편견에서 혐오로 비롯되는 모든 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영화속에 관통시키고 있다. 그 가치있는 시도가 <필라델피아>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영화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에 대한 선망과 수호에 대한 노력을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 1994년에도 2018년에도 진행중인 혐오와 편견에 관한 지나칠 수 없는 싸움에 대해서 말이다. **W**

사회적 편견에 맞선

다른 영화들..



외모는 바꿀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원더. 2017



This is me.
우리는 누구나 특별하다

위대한 쇼맨. 2017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란다.

히든 피겨스. 2016

숫자와 키워드로 알아보는



2018 러시아 월드컵

Knowledge is pleasure.



세계 각 나라의 문화와 도시를 소개하는 '원익월드'. 이번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로 향한다. 4년 만에 돌아오는 국제적인 이슈인 만큼 이번 호는 '러시아월드컵 특집'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러시아월드컵은 동유럽권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대회로,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33일간, 11개 도시 12개 경기장에서 32개국 736명 선수가 축구로 맞서 겨룬다.

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인의 축제 FIFA 월드컵. 평소 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몇 가지 숫자와 키워드를 알아둔다면 더욱 재미있게 월드컵을 즐길 수 있다. 러시아의 개막전 대승을 시작으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해트트릭, 독일의 36년만의 첫 경기 패배까지. 개막 직후 연이어 흥미로운 장면이 속속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월드컵에서 이번을 일으킬 대표팀과 선수는 누구일지, 어떤 기록이 새롭게 쓰일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자. 월드컵, 아는 만큼 즐긴다.



루이비통은 국제축구연맹(FIFA) 의뢰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트로피 보관함(FIFA WORLD CUP™ TROPHY TRAVEL CASE)과 공인구 컬렉션 트렁크를 제작했다. 트렁크 내부에는 아디다스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재구성한 1970년 이후 FIFA 월드컵 공인구 13개와 루이 비통이 디자인한 축구공 1개가 들어있다. (사진=루이비통)





원익홀딩스
이상훈 과장



2018년은 바로 월드컵의 해! 저와 같은 축구 마니아에게는 매우 설레는 해인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는 과감하게 월드컵 기간에 맞춰 러시아로 떠납니다.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 동부와 서부의 시차가 8시간 가까이 나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는 우랄산맥의 서쪽 지역, 즉 러시아의 서부도시에서만 열린답니다. 경기장 간 시차를 3시간 내외로 줄인 것이지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월드컵 개최 도시들이 위치한 서부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기가 펼쳐지는 니즈니노브고로드, 로스토프나도누, 카잔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지명일지 몰라도 러시아에서는 대도시에 속한답니다.

VAR

승부를 가를 주요 판정,
비디오로 보시죠.



월드컵 역사상 최초 VAR(Video Assistant Referee, 비디오판독시스템)이 도입된다. VAR은 골 장면, 페널티킥 선언, 레드카드 직접 퇴장, 제재 선수 정정 등 결정적인 상황의 판정에만 사용한다. 모든 경기에서 VAR 전담 심판이 4명씩 투입되며 이들은 모스크바 국제방송센터(IBC) 판독실에서 영상을 보며 그라운드의 주심과 협의한다. VAR 판독을 종료하면 해당 부분의 영상과 판정 결과 및 이유를 관중에게 제공한다. VAR 도입으로 숱하게 발생하는 판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보자.



텔스타 18

다시 태어난 월드컵 공인구

1970년 제9회 멕시코월드컵 전까지는 공인구가 없어 공을 둘러싼 국가 간 신경전이 거셌다. 예컨대 1930년 제1회 우루과이월드컵 결승전에 오른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서로 자국의 공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파는 전후반 자국의 공을 사용하게 했다. 이처럼 대회 때마다 공을 둘러싼 논란이 끝이지 않자 FIFA는 월드컵 공인구 제작 독점권을 독일의 스포츠용품 회사인 아디다스(Adidas)에 부여했다. 이번 월드컵엔 초기모델 '텔스타'에 최신 기술을 접목해 '텔스타18'을 재창조하였다. 초기 흑백 텔레비전에서 잘 보이도록 흑과 백, 2가지 색을 이용한 것을 클래식하게 재해석하며, 공에 NFC(근거리무선통신) 칩을 장착해 스마트폰으로 사용자의 킥 속도, 위치 추적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플라스틱 재질로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골키퍼들이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12개 구장에는 모두 하이브리드 잔디가 깔렸다. 이는 천연 잔디의 뿌리가 인조 섬유 잔디와 얹혀 자라는 복합형 잔디로, 그라운드 표면이 균일하기 때문에 볼 반발이 적고, 슬라이딩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잔디 구장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하이브리드

잔디도 하이브리드 시대!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독일의 8경기 승패를 모두 맞춘 점쟁이 문어 '파울'을 기억하는가? 이번에는 고양이 '아킬레스'가 뒤를 잇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예르미타시박물관에 사는 이 고양이는 청각 장애로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지난해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 4경기 가운데 3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혔다. 월드컵에서는 개막전(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과 뒤이은 이란-모로코전의 승리 팀을 맞히며 이슈가 되었다. 무엇보다 결승전의 결과를 맞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콜롬비아에서는 암사자가 영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돼지가 이번 월드컵의 승패를 점치고 있다.

점쟁이 고양이

문어에 이어 이번에는 고양이



아킬레스

가장 비싼 티켓 가격

러시아월드컵에서 가장 비싼 티켓은 결승전 1등석으로 한화로 약 124만 원이다.(티켓 오픈 당시 기준) 월드컵 개막 직후 암표 시장에서 6,200만 원까지 시세가 올랐다. 결승전은 8만석 규모의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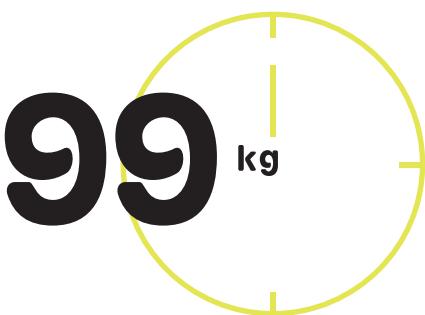
124
만 원
6,200
만 원



아이슬란드의 겨울동화

월드컵 개막 전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관심을 끄는 나라가 있다. 바로 파나마와 함께 월드컵 본선에 최초로 진출한 '아이슬란드'다. 인구 34만 명으로 역대 월드컵 참가국 가운데 가장 적다. 자국 내 프로 리그가 없어 감독(하들그림손)은 치과의사, 골키퍼(하네스 포르 할도르손)는 영화감독, 수비수(비르 키르 마르 세바르손)는 소금공장 직원 등 이른바 '투잡'을 뛴다. 그러나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다. 조별예선 첫 경기에서 우승후보로 손꼽는 아르헨티나와 비기며 숨은 저력을 입증하였다. 아이슬란드 특유의 세리머니 '바이킹박수'를 통해 관중들의 열정도 살펴볼 수 있다.

ICELAND



그라운드를 누비는 육중한 수비수

러시아월드컵 참가 선수 중 가장 무거운 이는 파나마의 수비수 '로만 토레스'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99kg으로 단독 1위다. 188cm인 키를 감안하더라도 축구선수로서는 다소 몸이 무겁다는 평가. 한편, 가장 가벼운 선수는 59kg으로 일본의 미드필더 '이누이 타카시'다.

32개국 중 스페인 선수단의 몸값 총액이 으뜸

먼저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전체 선수들의 몸값 총액은 120억 달러, 우리 돈 12조9천240억원에 달한다. 전체 1위인 스페인의 총액 가치는 전체의 10%인 12억1천710만 달러(약 1조3천108억원)로 나타났다. 소속 팀 FC 바르셀로나와 '무적함대' 스페인에서 미드필더로 뛰는 세르히오 부스케츠(30)의 몸값은 9천400만 달러(1천12억원)로 스페인 대표 선수 중 가장 비쌌다.

월드컵 최고 몸값 스페인



PERU
36

페루,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페루가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자 이를 자축하기 위한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다고 한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선사해준 전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휴일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이날 하루를 쉬게 된다. 학교도 문을 열지 않는다. 1930년 우루과이 대회를 시작으로 1982년 스페인 대회까지 4차례 월드컵 본선에 올랐던 페루는 이후 번번이 예선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36년 만에 감격스러운 본선 진출을 달성했다.



45
years

내 나이가 어때서~

월드컵 뛰기 딱 좋은 나이네~

만 45세의 나이로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가 있다. 바로, 이집트 대표팀 주장 겸 골키퍼 '에삼 엘-하다리'. 1973년생으로 역대 최고령으로 월드컵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을 경신했고, 동시에 조별리그 A조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 3차전에서 이집트의 선발로 페널티킥 슈퍼세이브까지 선보였다. 본인의 첫 월드컵이기도 하다. 은퇴직전 얻은 월드컵 첫 출전 기회에서 엘 하다리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만들었다.

자국리그 선수율 백프로! 잉글랜드

'삼사자 군단' 잉글랜드는 이번 월드컵에서 독특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3명 중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 비율이 100%다.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3명 중 2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네갈과 스웨덴(최종명단 마감일 기준)은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벨기에와 아이슬란드, 나이지리아, 스위스는 자국리그에서 단 한 명만이 빌터됐다. 반외로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나서는 선수들 중 74%는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 % All Kill



21

COMMUNICATION

월드컵 최다 우승국

1위 브라질 5회 – 1958 / 1962 / 1970 / 1994 / 2002

2위 이탈리아 4회 – 1934 / 1938 / 1982 / 2006

3위 서독 3회 – 1954 / 1974 / 1990

*서독과 독일을 구분하지 않고 2014년 브라질월드컵
‘독일’ 우승을 포함시키면 공동 2위.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득점 선수

1위 샤도르 코치수 (헝가리 선수, 11골, 1954년 스위스월드컵)

2위 쥐스트 풍텐 (프랑스 선수, 13골, 1958년 스웨덴월드컵)

3위 게르트 월러 (서독 선수, 10골, 1970년 멕시코월드컵)

월드컵 개최국

1930 ————— 우루과이

1934 ————— 이탈리아

1938 ————— 프랑스

1950 ————— 브라질

1954 ————— 스위스

1958 ————— 스웨덴

1962 ————— 칠레

1966 ————— 잉글랜드

1970 ————— 멕시코

1974 ————— 서독

1978 ————— 아르헨티나

1982 ————— 스페인

1986 ————— 멕시코

1990 ————— 이탈리아

1994 ————— 미국

1998 ————— 프랑스

2002 ————— 대한민국/일본

2006 ————— 독일

2010 ————— 남아공

2014 ————— 브라질

2018 ————— 러시아

월드컵 최다점수차 경기

월드컵 최다점수차 경기 기록에는 대한민국의 이름도 있다. 1954년 스위스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헝가리에서 9점차로 패한 것.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첫 출전이자, 아시아 최초의 주권 국가 출전이었다. 한국전쟁이 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예선에서 일본을 꺾고 본선 진출권을 따냈지만, 당시 선수들은 여권과 항공편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경기 이틀 전 가까스로 스위스에 도착했다.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헝가리의 100여 개 넘는 유효슈팅 공세 속에서, 불과 9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해 현지 언론을 놀라게 했다. **W**

헝가리 : 대한민국
(1954년 스위스월드컵)

9 : 0

유고슬라비아 : 자이레
(1974년 서독월드컵)

9 : 0

헝가리 : 엘살바도르
(1982년 스페인월드컵)

10 : 1

*편집 당시 진행 중이었던 러시아 월드컵 이전 대회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joins

2018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 vs 독일 2-0 승리!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자이언트 킬링(Giant Killing)'



23

COMMUNICATION

이모티콘, 감정을 소통하다.

‘콜포비아(Call phobia)’. 통화를 기피하는 현상을 일컬어 생겨난 신조어다. 굳이 통화를 하지 않아도 메시지로 소통이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다보니 현대인들은 자연스레 콜포비아로 변해버렸다. 메시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사회 현상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변신시키고 있다.



내 얼굴을 이모티콘으로 만든다면? 상상만으로도 흥미롭다. 동그란 얼굴, 작은 코, 두터운 입술. 가끔 콤플렉스로 다가오는 내 모습을 이모티콘으로 만들면 오히려 귀엽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매력 때문인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이모티콘 기술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필자도 아이폰 X를 처음 접했을 때 ‘애니모티콘’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에 푹 빠져 한동안 아이폰 X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귀여운 모습뿐만 아니라 섬세한 감정 표현도 이 기능의 인기 요인이다. 인간의 감정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기본 이모티콘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주기엔 다소 부족하다. 필자만 해도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 내 감정에 딱 맞는 이모티콘이 도저히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아이폰 X의 ‘애니모티콘’과 갤럭시 S9의 ‘AR 이모지’는 웃는 표정은 물론이고 찡그리는 표정, 고민하는 표정까지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준다. 마치 ‘아바타’처럼.





애니모티콘과 AR 이모지도 결국 내
감정을 100% 표현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지루했던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나만의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나를 표현한다면 조금
서툴러도 일상에 웃음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뿐
만 아니라 만든 이모티콘을 활용해
동영상이나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
내는 것도 흥미로운 시너지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애니모티콘과 AR
이모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
해 나갈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 기대가 된다.



이 기능을 최초로 내놓은 제조사는 애플이다.



애니모티콘

애플은 아이폰 10주년을 맞아 작년 11월 3일 아이폰 X을 출시했다. 아이폰 X과 기존 아이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베젤리스 디자인이다. 누리꾼들은 이 디자인을 보고 'M자 탈모'라는 별명까지 지어줬다. 아이폰 X은 최초의 아이폰과 비슷하게 전면 상단에 노치(notch)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깎아 내부에 카메라와 센서들을 탑재했다. 이 'M자 탈모'에 애니모티콘의 핵심 기술이 숨어있다.

아이폰X 전면 카메라의 정식 명칭은 M자 탈모가 아니라 '트루뎁스 (TruthDepth)'다. 트루뎁스 카메라는 아이폰 X의 핵심 기능인 '페이스 ID'와 '애니모티콘'을 구동한다. 전면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면 보이지 않는 3만 개 이상의 적외선 점이 투사돼 얼굴과 얼굴 근육을 분석한다. 이 점들이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것까지 감지해 애니모티콘을 만들어낸다. 애니모티콘은 아이폰 X 출시와 함께 즉각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SNS와 유튜브에는 애니모티콘으로 촬영한 뮤직비디오, 더빙 영상 등이 게재됐다.

디바이스
아이폰 X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앱

기반 기술
트루뎁스 카메라

녹화 시간
10 Second

추가 예정 기능
메모지
(Memoji)

갤럭시 S9 시리즈는 '나'와 같은 모습이다.



AR 이모지

디바이스
갤럭시 S9, S9+

애플리케이션
카메라 앱

기반 기술
Loom.ai AR API

녹화 시간
제한 없음

추가 예정 기능
디즈니 캐릭터

애니모티콘은 동물이나 캐릭터 이모티콘에 내 감정을 실었다면 갤럭시 S9 시리즈의 'AR 이모지'는 나와 같은 모습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준다. 아이폰 X 출시 3개월만에 나타난 경쟁자 갤럭시 S9 시리즈. 출시는 늦었지만 AR 이모지도 인기가 만만치 않다.

갤럭시 S9 시리즈는 카메라에 AR(증강현실)을 접목시켜 'AR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이 기술은 'Loom.ai'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Loom.ai는 갤럭시 S9 시리즈에 '매퍼SDK(Mapper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는 '얼굴추적 소프트웨어'다.

아이폰 X이 트루뎁스 카메라로 얼굴을 스캔했다면 갤럭시 S9 시리즈는 카메라에 탑재된 이 소프트웨어로 얼굴을 '추적'한다.

애니모티콘은 아이폰 메시지 앱(App)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동물 또는 캐릭터를 선택한 후, 아이폰 X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얼굴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도록 맞춘다. 녹화 버튼을 눌러 촬영하면(최대 10초까지 가능) 나만의 이모티콘이 만들어진다. 영상이 아닌 스티커로도 만들 수 있다. 똑같이 메시지 앱에서 애니모티콘을 선택하고 촬영한 다음 애니모티콘을 길게 터치해 메시지로 드래그하면 상대방에게 애니모티콘 스티커를 전송하게 된다. 애니모티콘을 기기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내 모습을 외계인, 강아지, 고양이, 돼지, 로봇, 원숭이, 유니콘 등으로 창조할 수 있다.

지난 6월 4일에는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인 ios 12가 발표되면서 동물, 캐릭터가 아닌 사람 얼굴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이모티콘의 이름은 ‘메모지(Memoji)’다. 녹화 시간도 30초로 늘었다. 피부색과 머리 모양, 눈, 코, 입 등을 선택해 나만의 얼굴을 만들어 촬영할 수 있다. 메모지는 올해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모델에 탑재된다.

트루뎁스 카메라에는 700만 화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및 센서, 투광 일루미네이터, 앰비언트 라이트 주변 광 센서, 근접센서, 도트 프로젝터, 스피커, 마이크 등이 탑재됐다. 주요 부품 공급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폭스콘, 소니, 피니사, 필립스 등이다. 전문가들은 아이폰 X의 제작이 지연된 이유가 이 고성능 부품과 시스템들을 조립하는 데 꽤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트루뎁스 카메라는 50개 이상의 각기 다른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세밀한 표정을 16개의 애니모티콘에 투영한다.
내면의 동물적 본능을 표현해볼까?
로봇이나 외계인은 어때요?





AR 이모지

▶
느낌
이모지

AR 이모지의 장점은 바로 ‘속도’다. Loom.ai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단 몇 초만에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해 하나의 이미지보다 더 세밀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한다. 한 번의 촬영으로 하나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지는 애니모티콘과 이 점이 다르다.

AR 이모지는 메시지 앱에서 사용 가능했던 애니모티콘과 달리 아예 카메라 기능 중 하나로 내장됐다. 카메라 촬영 모드에서 AR 이모지를 선택한 후 마이 이모지 만들기를 누르고 촬영 화면에 얼굴을 맞춘 후 촬영한다. 마이 이모지의 성별을 선택한 후 원하는 대로 꾸미면 나와 닮은 모습의 이모티콘이 생성된다. AR 이모지도 애니모티콘처럼 스티커로 만들어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다. 녹화시간의 제한이 없고 눈, 코, 입, 피부색, 머리 모양 등 100개 이상의 사용자 특징을 분석해 이모티콘으로 만든다. 내가 지은 표정 외에도 18가지의 표정을 짓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준다.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AR 이모지 잘 만드는 방법을 참고했다. 일단 셀카를 찍을 때처럼 빛이 많은 곳이어야 하고 머리카락이나 액세서리가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최대한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찍는 것이 포인트.

사실 필자는 AR 이모지를 처음 사용했을 때 당황스러웠다. ‘이게 나라고?’ 하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 옷 등을 매치하다 보니 어느새 내 맘에 쏙 드는 이모티콘이 완성됐다. 애니모티콘과는 달리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재미가 있다.**W**



표정부터 행동까지 나를 똑 닮은 이모티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마음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모지.

DEEP



32 WONIK HERO

‘그 이상의 GEMINI’를 위한 환상적 PARTNERSHIP

38 그뤠잇 팀

자유와 소통으로 만들어 낸 화학적 시너지
원익큐브 화학사업부 무역팀

44 밥 한 번 먹어요

배려심 깊은 다섯 남자의 ‘생산’적인 저녁식사

50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투자파트너스 김호성 팀장 & 오윤진 과장

52 MENTORING

사무실에서 펼치는 두 남자의 드라이브
원익큐엔씨 김동현과장 & 정지형 사원

58 명작예찬

빛의 확산의 경이로움

60 팔로미

여름을 즐기는 축제

‘그 이상의 GEMINI’를 위한 환상적 PARTNERSHIP



공철민 상무 외 10명

반도체1사업부 개발1팀 김민 상무, 최영철 부장, 김동규 부장, 김선일 과장,
고객지원팀 정운학 부장, 권경호 부장, 기술개발팀 김용진 부장, 송민기 부장,
반도체2사업부 개발팀 김경수 부장, 핵심기술센터 선행설비개발팀 왕현철 부장,
품질보증팀 강정원 과장



작년 1월, 우리 회사의 차세대 반도체 설비 GEMINI가 양산에 돌입했다. 이제
고객사 반도체 제작 공정에 GEMINI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만 남았다.
그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 지금껏 열심히 달려온 팀이 있다. 2017년도
원익인상 기술개발 부문을 수상한 GRMINI TFT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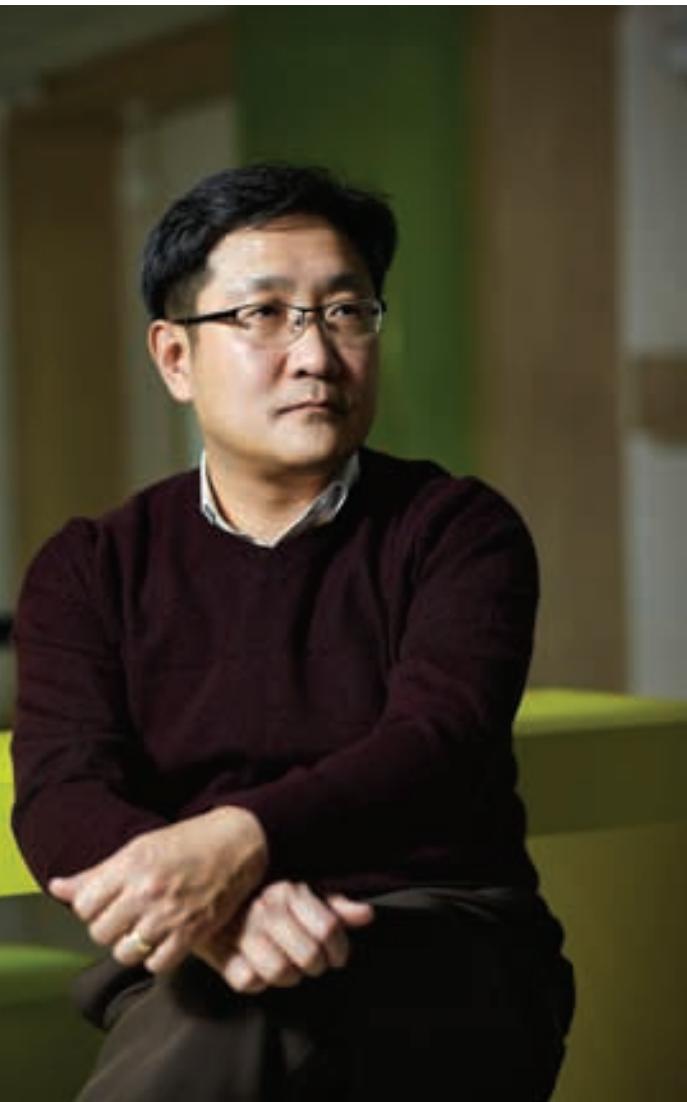
고생 끝에 만난 수상의 영광

안녕하세요. 원익인상 수상을 맞아 GEMINI TFT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나선 공철민 상무입니다. GEMINI TFT는 그야말로 전사적인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인 GEMINI를 현장에 이식시키는 일을 맡았으니까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반도체1사업부 개발1팀 김민상무, 최영철 부장, 김동규 부장, 김선일 과장, 고객지원팀 정운학 부장, 권경호 부장, 기술개발팀 김용진 부장, 송민기 부장, 반도체2사업부 개발팀 김경수 부장, 핵심기술센터 선행설비개발팀 왕현철 부장, 품질보증팀 강정원 과장, 그리고 저까지 모두 12명의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 고객사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고민했고, 기어코 해결하고야 말았죠. 각자의 일과와 GEMINI TFT 업무를 병행하며 정신없는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원익인상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감격적입니다.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달려온 GEMINI TFT 팀원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생하신 고객사 직원 분들과 휴일, 야간 할 것 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회사 선후배들에게도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덕분에 GEMINI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고, 원익인상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같이 직접 보고를 받으신 것은 물론, GEMINI TFT의 모든 현안을 꼼꼼하게 쟁겨 주시고 폭넓게 업무 지원을 해 주신 이현덕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일과와 GEMINI TFT 업무를 병행하며
정신없는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원익인상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감격적입니다.



고객사에는 제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어 좋고,

끊임없는 개선 활동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다

GEMINI TFT의 정식 출범은 작년 3월이지만, 저희는 GEMINI 개발 단계부터 양산화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비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 기존의 MP 설비를 뛰어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GEMINI입니다. 이후 GEMINI는 실제 공정에서의 시험 가동을 거쳐 양산이 결정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에 GEMINI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출시한 신제품이다 보니 실제 공정 투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 GEMINI TFT입니다.

GEMINI TFT의 업무는 고객사의 반도체 공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정을 운영하는 도중 GEMINI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사에서 GEMINI TFT에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 즉시 문제점과 관련 있는 팀원들이 한데 모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거쳐 적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GEMINI 설비의 완성도를 업그레이드해 나갑니다. 고객사에게는 제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어 좋고, 우리 회사의

우리 회사의 내실도 든든히 하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격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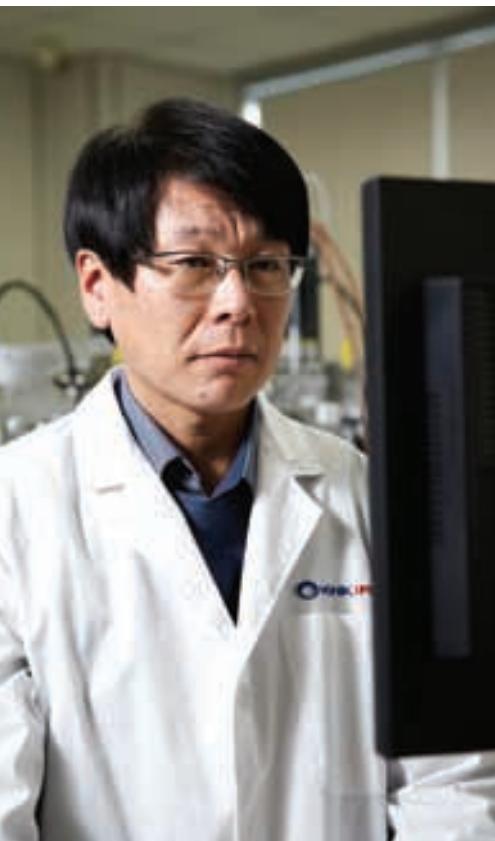


내실도 기를 수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격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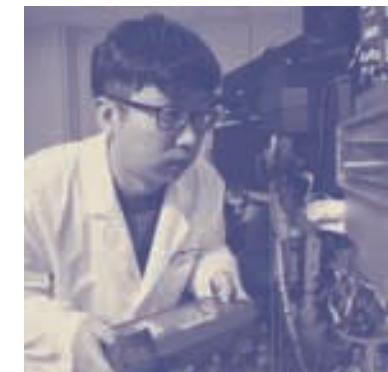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파티클(particle)’ 문제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웨이퍼 표면 위에 먼지가 앉으면 반도체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구조 및 공정 개선,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고, 지금은 문제없이 설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사 공정의 MP 설비를 GEMINI 설비로 교체, 업그레이드하는 업무도 함께 맡았는데요.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약 4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원익 인상을 받도록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OPEN
INNOVATION



우리 팀의 성과는
우리 것만이 아니다.



임직원 분들 모두의 협력과 노고가 담긴, 열매다.

GEMINI TFT가 남긴 ‘값진 유산’

여기까지 달려온 나날들을 되짚어 보면 GEMINI TFT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과업 중심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GEMINI TFT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사의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관련된 팀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주어진 업무를 가운데 두고 역량을 끌어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을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한 가지가 전제돼 있어야 합니다. 팀원들에 대한 믿음과 끈끈한 협동심입니다. GEMINI TFT의 팀원들은 각자 따로 적을 두고 있었지만, 여느 상설 부서에 뒤지지 않는 팀워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특유의 열린 소통과 화목한 분위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의 성과는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회사 임직원 분들 모두의 협력과 노고가 담긴, 달콤한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이슈든 6시간 내에 처리한다.’ GEMINI TFT의 슬로건입니다. 사안의 경증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팀이 해산했지만, 저희 팀원들은 여전히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 업무에 임합니다. GEMINI TFT가 남긴, 저희 나름대로의 값진 유산이죠. 더불어 이제는 어떤 TFT에 들어가더라도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원익인상까지 받게 됐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



THE 2017

WONIK PRIZE

대상
이승호 부장
테라세미콘

생산부문상
최광업 부장
원익아이피에스

영업 마케팅
임현옥 부장 외 3명
원익테라세미콘

관리혁신부문상
김민철 과장
원익마트리얼즈

자유와 소통으로
만들어 낸
화학적
시너지





호흡이 잘 맞는 관계를 화학작용에 빗대 소위

‘케미(chemistry)’가 좋다고 말한다. 외적으로는 공급처와
내적으로는 영업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화학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관장하는 원익큐브 화학사업부 무역팀.

그 궤적한 팀워크의 비결을 물으니 ‘자유’와 ‘소통’이 융합하여
만들어 낸 화학적 시너지라고 말한다.

진정한 ‘케미’가 돌보이는 그들을 만나 보았다.



무역팀의 특징을 한마디로.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초콜릿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규격화된 판 초콜릿이 아니라 발렌타인 선물처럼 각자 멋지고 아름다운 자신만의 개성을 품고, 무역팀이라는 이름으로 조화롭게 융합된 모습이랄까요. 점심시간만 보아도 운동을 하러 가거나, 중국어 스타디를 하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낮잠을 즐기는 등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무역팀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저희는 각자의 개성과 자유 시간은 존중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그야말로 ‘자유-소통-행복’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팀입니다.

강압이 없고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않기 때문에 팀워크를 이루며 오래 갈 수 있지요. 따라서 ‘자유’와 ‘소통’이 바로 무역팀은 핵심역량 아닐까요. ‘행복’은 자유와 소통이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니까요.

무역팀의 중점추진목표는요.

현재 추진 중인 신규사업이 자리를 잘 잡아서 매출목표액을 100% 이상 달성하는 것이 하반기 목표입니다.

신규품목을 론칭하면서 기존의 구매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신규품목 수출이 자리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한 무역팀의 업무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이끄는 판교. 그 중심을 흐르는 금토천을 끼고 우뚝 자리 한 원익큐브를 찾았다. 테크노밸리의 성장동력을 품에 안고 유유히 흐르는 금토천처럼 원익큐브 화학사업부 곳곳을 누비며 소통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무역팀 3인방, 이지현 과장, 김미선 과장, 김보민 사원을 만났다.

화학사업부는 국내 기초산업 및 화학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수입,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수입판매사업을 수행한다. 그중 무역팀의 업무를 이지현 과장이 일목요연하게 말해 준다.

“먼저 품목 발주가 필요한 시장 상황, 시

장의 니즈(needs)를 면밀히 파악한 뒤에 공급처와 가격을 협의하고 수입 품의 서를 올려 거래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입 흐름과 같아요. 다만 취급하는 제품이 화학제품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업무정의는 단순명료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제품은 물론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 등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적절 판매가 결정을 적극적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한 업무이다. 시장을 읽는 통찰력과 수입 적기를 놓치지 않는 민첩함, 그리고 무엇보다 공급 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최근 외국 공급선이 내방했을 때, 한국 그리고 원익큐브에서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김미선 과장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공급처와의 관계에서 의전이 중요한데요. 해외여행 경험도 많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 그들의 문화나 취향에 잘 녹아들만한 음식을 추천하는 등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의전 업무가 아니어도 서로 주변 맛집을 추천하며 정보를 공유한다는 무역팀. 업무와 일상생활을 오가는 정보공유는 그들의 팀워크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척하면 척, 촉이 살아있는 소통 팀워크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앞서 말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크다.

“가격 정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 또한 시장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활발한 대인관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공급처 그리고 영업팀과 원활한 정보교류, 그 또한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이 때 중요한 요소가 소통인 것 같아요. 거래처와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듣는 정보가 많고, 현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영업사원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장의 동향과 니즈를 파악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부드러운 듯 거칠없는 무역팀의 대외적 소통 능력은 팀 내부에서 그 동력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저희 팀은 평소에 따로 회의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끊임없이! 중요한 업무적인 현안부터 아주 사소한 시시콜콜한 것까지 활발히 공유하는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들으면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웃음)” 팀 내 소통을 말할 때 ‘끊임없이’라는 말을 강조해달라는 무역팀 팀원들. 그 정도로 활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팀 내 소통의 주역은 팀을 이끄는 유지은 팀장의 역할이 크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 팀장으로서 ‘보고가 아닌 공유’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유를 통해 사소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사안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그때 그때 좋은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또한 같은 팀의 든든한 청일진 이제준 대리를 비롯한 무역팀 전체가 체질화된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소위 ‘촉’이 생기잖아요. 뭐랄까, 딱 부러지게 말 할 순 없지만, 센서가 작용한달까요. 팀 내 모토가 ‘촉이 살아있는 팀이 되자!’예요. 무역팀의 특성상 촉이 굉장히 중요 한데, 단순히 ‘느낌’을 일컫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현업에서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생기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무님께서 강조하시는 ‘마켓센싱(market sensing)’이랄까요.”





원익큐브

화학사업부 무역팀

이지현 과장 | 김미선 과장 | 김보민 사원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카리스마



팀 내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는지 묻자, ‘척하면 척’하고 통하는 소통의 팀답게 김보민 사원이 명답을 제시한다.

“그때 저희 영남화학 사업부에서 상금 받았잖아요. 급한 일 처리해줘서요.” 이에 김미선 과장이 화답한다.

“저희가 수입한 제품이 있었는데 받고 보니 불량이었어요. 애초 수입 용도에 맞춰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죠. 판매 재고가 급했던 상황인데 저희 팀이 중국에서 급하게 대체품을 구매해왔어요. 그래서 영남화학 사업부에서도 문제 없이 원활하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죠. 같은 해 영남화학 사업부가 우수사업부로 선정되면서, 그때 상금 중 일부를 저희 팀에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겸손한 말투로 덤덤하게 말하지만, 그때 무역팀의 임기응변이 있었기에 판매의 차질을 막을 수 있었고, 이는 영남화학 사업부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그때 무역팀은 직접 상을 받은 것만큼 기뻤다고. “무엇보다 저희 팀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1,000톤가량의 10억이 넘는 물량 이였거든요. 다행히 그 제품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외국에 수출하고 손해 없이 잘 마무리 지었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하는 무역팀의 역할을 잘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일이 다 열거 할 순 없지만, 이들의 임기응변과 조율 능력은 문제 상황이나 이슈가 생겼을 때

더 크게 빛을 발휘한다. 이 또한, ‘소통’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지현 과장은 말한다.

“공급처뿐만 아니라 영업팀과도 평소 긴밀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설령 일이 틀어진다고 해도 상황을 바로 알고, 큰 트러블로 번지기 전에 부드럽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슈 상황에서도 소통을 단절하지 않고 서로 상황을 오픈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소통이라는 단어를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마음으로 전달하기는 어렵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소통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무역팀의 행보를 앞으로도 주목 할 일이다. **W**

늘 지금처럼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도 여유롭게

일과 일상의 밸런스를 맞춰가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무역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려심 깊은 다섯 남자의

‘생산’적인
저녁식사





원익머트리얼즈와 원익큐엔씨의 생산을 담당하는 임직원 5명이
청주의 고급 일식집에 모였다. 계열사 간 생산 업무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발전적인 업무의 힌트를 찾아보기로 한 것.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에서 공감대를 찾으려 노력했고,
눈빛과 웃음으로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했다.
배려심이 돋보인 다섯 남자의 '생산'적인 이야기

삿뽀로 청주점
전통 일식요리 전문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50
043-237-4224

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강혁 상무



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김영민 대리

원익큐엔씨
쿼츠제조본부 생산팀
김진일 대리



성장하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

강혁(원익머트리얼즈 생산담당 상무) 구미에서 청주까지 한달음
에 달려와 준 원익큐엔씨 식구들,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김진일(원익큐엔씨 쿼츠제조본부 생산2팀 대리) 반갑게 맞아 주셔
서 감사합니다. 상무님! 저와 최석현 사원도 생산팀에서 일하고 있어
서 다른 계열사가 어떻게 생산 업무를 진행하는지 궁금했는데요. 오
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원익머트리얼즈 생산1팀 대리)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대리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요새 원익큐엔씨 생산팀의 업
무 중점사항은 무엇인가요?

최석현(원익큐엔씨 쿼츠제조본부 생산2팀 사원) 요즘 반도체에 들
어가는 쿼츠(Quartz ware) 발주량이 점점 늘고 있는 데다가, 주 52시
간 근무제도 시행되면서 신입사원을 전보다 많이 뽑고 있는데요. 이
에 따라 신입사원 교육이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영민(원익머트리얼즈 생산1팀 대리) 사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전체적인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각 업무 맞춤형 교육에 힘쓰고 있
죠. 더불어 업무 숙련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으
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자동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혁 신입사원 교육과 생산량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
해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원익머트리얼즈와
원익큐엔씨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는 공장을
어떻게 돌릴까 고민하는 회사가 혀다한데, 우리는 지금도 잘 돌아가
는 공장을 어떻게 더 잘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발전하는 회사의 일원이라는 것, 생각만 해도 멋
지지 않나요? (웃음)

김영민 아까 상무님이 발전하는 회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유로운 소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 회사는 위계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특장점에 맞춰 스스로 없이 토론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 정말 잘 된다는 거죠. 만약 평소에 상무님 대하기가 불편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웃음)

김민식 김영민 대리 이야기에 100% 공감해요. 요즘 상무님과 저는 공정 자동화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상무님과 수시로 논의하는 와중에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상무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거니와, 제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이죠. 원익그룹 내에 퍼져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가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혁 두 대리가 핵심을 짚는군요. 원익그룹의 핵심 가치 중에 ‘소통-존중과 배려’가 포함돼 있는 거 알고 있죠? 정말 멋지면서도 회사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예요. 저도 임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이 가치를 일상 속에서부터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실천

법이 바로 ‘경청’이에요. 직원들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과 회사를 성장시키는 힌트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른바 ‘소통의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직원들과의 대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사안이건 반드시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하는 건 존중과 배려의 소통이 주는 강력한 힘 때문이지, 제가 잘나서가 아니랍니다. (웃음)

김진일 업무 외적인 교류와 소통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일도 한결 수월하게 돌아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내 스크린골프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최석현 사원이 얼마 전부터 골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동호회 가입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같이 취미활동을 하면서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강혁 아, 두 분 취미가 골프였군요! 저도 사내 골프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을 만큼 골프를 좋아해요. 언제 시간 내서 공 한 번 칠까요?

최석현 좋습니다, 상무님! 지금 골프채를 열심히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 모이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웃음)

한
발
더
나아
가다
존
중
과
배
려
로



원익큐엔씨
퀴즈제조본부 생산팀
최석현 사원

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김민식 대리



살찌우는 보약
소통은 우리 모두를

함께 모여 맛본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었다.
회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맛봤고,
존중과 배려가 원익그룹 안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으며, 소통의 중요성과 핵심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의 웅숭깊은 대화는
바로 존중과 배려의 소통, 그 자체였다.

김진일 요즘 신입사원들과 자주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들고, 그래야 배려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민식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식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김진일 대리님 말씀에 더해서, 저는 '공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조직이 목표를 이루려면 구성원들이 뜰뜰 뭉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과 강한 공감대를 이뤄야 하고 '둘만 있어도 편안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현 두 대리님 이야기의 연장 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다림'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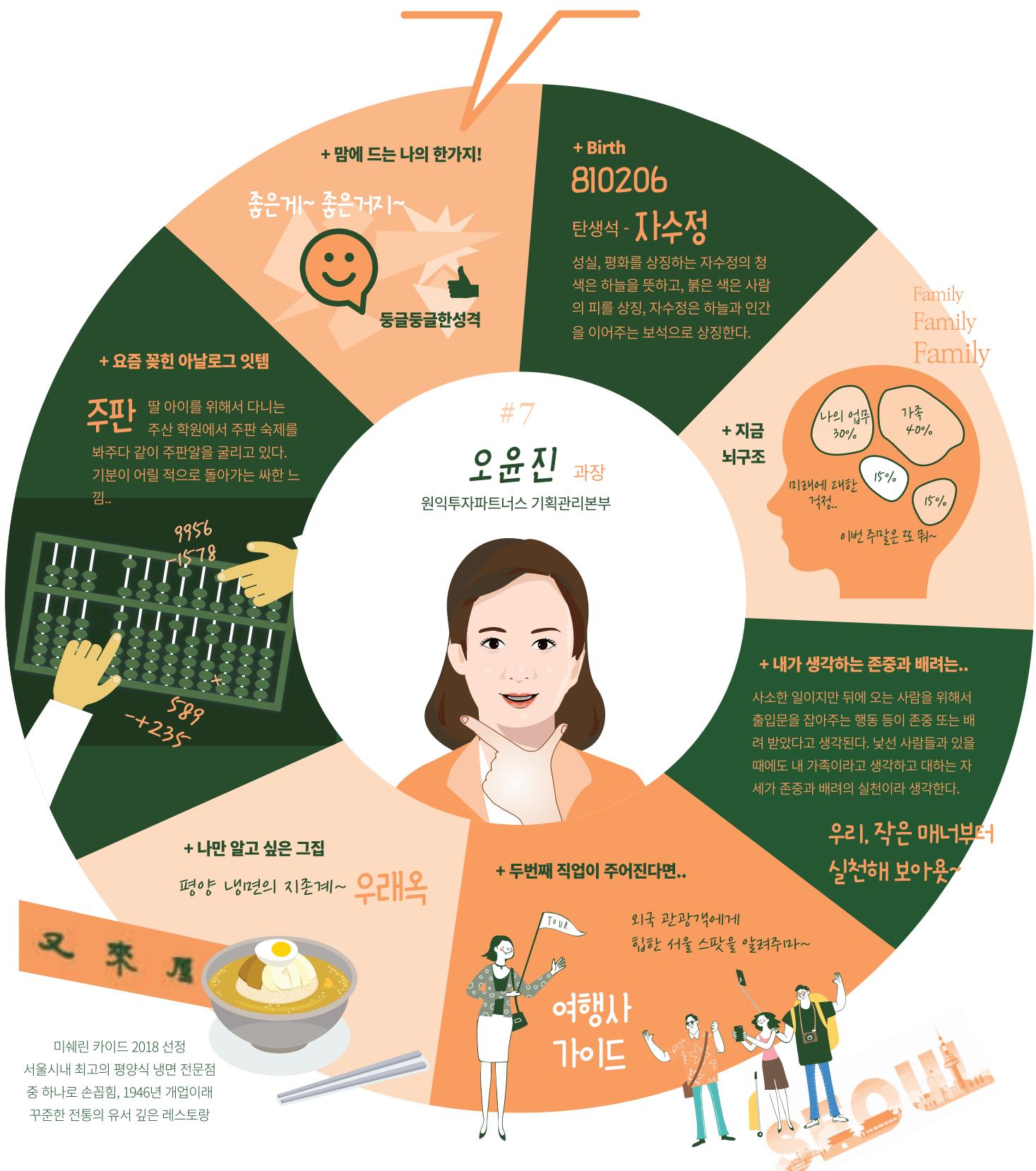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따라서 마음을 열 시간을 주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강혁 서로에 대한 '인정'도 존중하고 소통하는 배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예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통할 수 없어요. 나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접붙여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원익인의 소통 자세이자 우리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아닐까요?

김영민 자, 이제 제가 이 논의를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소통은 '보약'이다! 마치 몸에 맞는 보약처럼, 하면 할수록 일도 잘 풀리고 인간적인 정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완벽한 정리 아닌가요? (웃음) **W**



원익인물사전



#가족의행복=곧마이행복

이란취향 저란취향 각/인/각/색 피플디셔너리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원익큐엔씨 GOC실

멘토 김동현 과장



원익큐엔씨 GOC실

멘티 정지형 사원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통찰력을 다져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시야를 집중해 초점을 맞출 줄도 알아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때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기보다는 방향을 찾는 법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멘토의 역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원익큐엔씨 GOC 실을 찾았다. 입사한 지 만 8년이 되어가는 김동현 과장과 공채 4기로 올해 1월 한 팀이 된 정지형 사원. 그들을 만나 진정한 멘토-멘티의 관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무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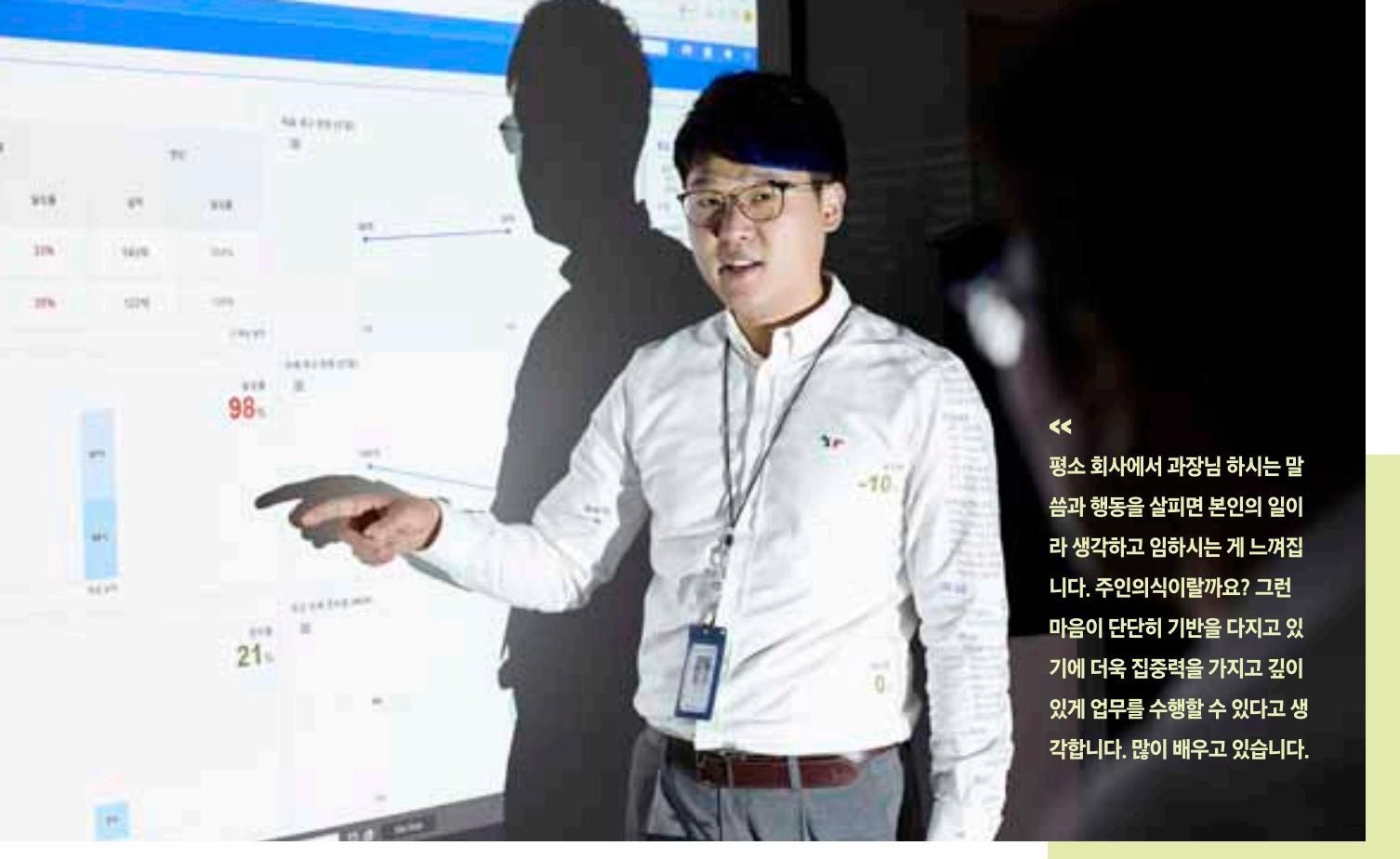
펼치는

두 남자의 드라이브



33

COMMUNICATION



“
평소 회사에서 과장님 하시는 말
씀과 행동을 살피면 본인의 일이
라 생각하고 임하시는 게 느껴집
니다. 주인의식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단단히 기반을 다지고 있
기에 더욱 집중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정지형 사원은 일할 때의 집중도도 뛰어
나지만, 무엇보다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평소 일과 생
활의 균형을 잘 맞춰 잘 운용하는 게 보이
거든요. 업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자기
계발과 관리에 꾸준한, 장점이 많은 친구
입니다.



믿고 핸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조수석에 앉아 줄 사람

처음 접하는 이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GOC(Global Operation Center)실. 두 사람의 업무는 한국을 비롯한 독일, 대만, 미국에 자리한 해외 사업부의 생산 및 운영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으로, 각 사업부에 있는 임직원들이 같은 시스템을 공유케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일적으로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GOC실이 출범한 지는 이제 약 6개월, 그야말로 새로이 바닥을 다져가는 일이다. 그래서 정지형 사원과의 관계가 여느 직장의 사수-부사수와는 다른 면이 있다고 김동현 과장은 전한다. “제가 기존 업무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업무 셋업을 같이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과 관계에서도 특수성을 띠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업무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두 사람은 함께 속도를 맞추며 길을 찾아가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두 사람의 과업을 운전에 비유할 때 정지형 사원은 믿고 핸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김동현 과장은 기꺼이 조수석에 앉아 세심하게 가는 길을 살펴줄 사람이다. “과장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방향을 일려주세요. 정답풀이보다는 이를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라’ 인데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주 되새겨보곤 합니다.”

정지형 사원의 말에 김동현 과장이 그 이유를 덧붙인다. “처음부터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배우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1=2$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진 않아요. 원리를 설명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고민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 다음번에 어떤 과업이 놓여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만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지형 사원은 입사 후 실무의 핸들을 잡으며 원익큐엔씨를 운행할 드라이버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법이다. 목적지로 향하며 함께 경로를 조정해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기꺼이 조수석에 앉아 지켜보며, 필요할 땐 핸들의 방향을 바로잡아 줄 사람. 멘토 김동현 과장을 통해 정지형 사원은 원익큐엔씨를 이끌 베스트 드라이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익큐엔씨 GOC실

멘토 김동현 과장

멘티 정지형 사원

사무실에서 펼치는

두 남자의 드라이브

원익이 그려갈 큰 그림,

든든한 밑바탕이 되기 위해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 두 사람의 처음 만남은 어땠을까. “들어올 때부터 능력이 출중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첫 직장이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신입사원 OJT 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해주셔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첫인상과 지금 모습이 한결같다며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정지형 사원. 이에 김동현 과장은 자체 없이 칭찬으로 화답한다. “공채 직원과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게 처음이에요. 정지형 사원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아니 연세가 좀 드신 편이거든요. (일동 웃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저희 팀과 업무에 매우 잘맞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티의 타고난 기질과 멘토의 세심한 조언 덕분이었을까. 정지형 사원은 실제 업무를 통해 김동현 과장의 바람에 기대 이상으로 부응했다. SNOP(Sales and Operation) 시스템을 도입하며 검토부터 셋업까지 함께 진행했는데, 정지형 사원이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개선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처럼 서로 거리낌 없이 조언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서로에게 ‘최적화’된다고 할까요.”

평소 모습을 짐작하게 하듯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니 목소리가 자못 진지해진다. “반도체부품사업부의 글로벌 넘버원 달성을 목표 시기가 2020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만, 원익큐엔씨의 각 해외 사업부가 협업하여 시너지를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사업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최적화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희 GOC실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굳은 각오와 바람처럼 두 사람의 시너지가 원익큐엔씨 전체의 시너지로 이어져, 원익의 큰 그림의 밑바탕이 되길 바라본다. **W**



원 익 큐 앤 씨 G O C 실

멘 토 김 동 현 과 장

멘 티 정 지 형 사 원

사무실에서 펼치는

두 남자의 드라이브

빛의 확산의 경의로움

Multicolore Console
Charly Bounan



원의 판교 사옥 2층 로비

2층 라운지 Charly Bounan의 작품과 함께하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1등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권

2등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4th Gallery



Charly Bounan은 세련된 스타일로 크리에이티브한 영향력을 지닌 파리의 디자이너이자 갤러리 작가이다. 아트 딜러인 동시에 디자이너인 그는 Armand, Tobiasse, Combas, Klasen 등 전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유명한 예술가들과 나란히 함께 해 왔다.

현대적인 디자인에 독창적인 소재와 터치를 구현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가구를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가능하는 이 작업은 대체로 altuglass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 어려운 소재는 내구성이 강한 수지와 유리처럼 반투명하여 다양한 층을 이루는 색의 작업은 각 부분별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빛의 확산의 경의로움, 형태와 물질의 조화, 현대적인 디자인, 그의 터치로 탄생한 콘솔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예술가로서 디자인의 역사에 열정적인 Charly Bounan은 근대화 예술의 모든 시각 효과를 표출하기 위해 최근 아르데코 스타일을 비롯한 고전 가구 조각을 함께 제작하며, 작품들은 파리 3번가의 마레 (Marais) 중심부에 위치한 넓고 친근한 쇼룸이 마련되어 그의 특창적이며 순수한 미술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Charly Bounan의 Multicolore Console은 원의 사옥 2층 라운지에서도 친근하게 경험 할 수 있다.

하루 중 오랜시간 머무는 ‘일’하는 곳에서 벗어나 함께 나누는 ‘공간’을 깊이 생각하는 원익의 기업 문화에서 엿볼 수 있다. 예술을 멀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서 예술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친근하게 스며들길 바라는 그의 이상과 일부만을 위함이 아닌, 원익인 모두가 보는 것에서 한 층 더 나아가 함께 가치를 나누기를 바라는 원익의 실제적인 가치와 Charly Bounan이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따뜻한 가슴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 경청하는 진정한 공감의 소통은 Charly Bounan의 테이블이라면 조금 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올 것 이다. **W**

피하지 말고
여름을 즐기는
축제

2018

Summer Festival

여름 휴가는 가까운 이곳에서 즐겨볼까요?



인천

2018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한국 록 음악가와 세계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대형 록
페스티벌

08. 10 ~ 12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



충남

부여서동연꽃축제 2018

궁남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연못으로, 매년 축제 기간동안 백련, 흥련, 수련, 가시연 등 10만여평 50여종의 다양한 연꽃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야생화와 수생식물이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 아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문화예술공연, 상설체험, 특판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7. 6 ~ 7.15 서동공원(궁남지)



충남

보령 머드축제

동양 유일 패각분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천 해수욕장은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1998년 처음으로 제 21회를 맞았다. 갯벌에서 진행되는 게임, 머드 슬라이드, 갯벌 장애물 마라톤 대회, 머드 퀴즈랜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나게 머드를 온몸에 묻히며 놀다 보면 자연스레 피부 미용 효과까지!!

팁: 귀에 머드가 들어가지 않게 귀마개 준비.

7. 13~ 7. 22 대천 해수욕장

대전

2018 토요일엔, 별빛콘서트

1998년부터 대전 지역예술가공연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피아졸라의 작품들로 꾸며진 매혹적인 탱고, 클래식과 재즈를 조합한 클래즈파이브, 아름다운 목소리와 감미로운 연주의 하모니 양상을 소토보체가 바로크 명곡, 한국가곡, 영화음악, 오페라 아리아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목관 악기 양상불인 우드파이브가 별빛과 잘 어울리는 모차르트의 '작은별', '호두까기 인형'의 모음곡 등을 들려주며, 별빛콘서트의 끝을 맺어줄 예정이다.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에서 캔들, 주얼리, 드라이플라워, 캘리그라피, 시, 그림, 에코백 등 공예작가들의 작품 전시, 체험, 판매하는 프리마켓이 함께 운영되어 낮부터 밤까지 관객들의 즐거움을 더해진다.

7. 21/ 9. 8 / 9. 15

대전 작은내 수변공원

무료관람 / 전체 관람가

포항국제불빛축제2018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가 포항을 상징하는 '빛'과 제철소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을 테마로 2004년 포항시민의 날에 맞춰서 불꽃쇼를 가진 것이 국제규모의 축제행사로 확대되었다. 올해는 영일만 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약 10여만발의 불꽃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물고기 잡기 열기구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국내외 관광객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7. 25 ~ 7. 29
영일대해수욕장

경북



신촌 물총 축제

거리에서 물총을 쏘면서 놀다 보면 젊음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디제잉과 버블파티, 많은 공연 등을 도심 한가운데서 보고 즐길 수 있다.

7. 7 ~7. 8

무주반딧불축제 2018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어있는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가 소재인 무주 반딧불축제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자연을 즐기는 환경축제'로서 올해의 주제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 주요 행사로는 환경·곤충 체험, 문화·예술·놀이 행사, 민속체험, 먹거리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9. 1 ~ 9. 9

무주군 일원(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326-17)

전북



경기

허브아일랜드 허브향기사워축제 2018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샤워파티~ 베네치아 마을과 폭포정원의 신비한 분위기를 담은 허브워터와 산타마을에서 보랏빛 산타들과 함께 허브워터를 온 몸으로 맞아보자. 라벤더, 타임, 세이지, 유칼립투스 등 호흡기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로마 오일을 블랜딩하여 지하 200M 천연 암반수에 넣어서 쓴다.

6. 1 ~ 10. 31

허브아일랜드(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47번길 35)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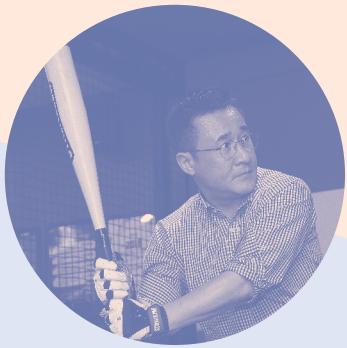
부산바다축제 2018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해수욕장까지 부산의 주 5대 해수욕장 전체에서 벌어지는 2018 여름 축제. 매년 여름이면 사람이 모이는 부산에서 열리는 핫한 축제로 인공풀장을 이용해 시원하게 즐기는 공연과 푸드트럭, 길거리 공연까지. 여름휴가 계획이 부산이라면 꼭 참여하길 바란다.

8. 1 ~ 8. 5

해운대 해수욕장

WIDE



특별한 강의 1

축적의 시간, 스케일업 혁명

특별한 강의 2

Upgrade에서 Upgreat로의 전환

원익은 지금 ❶ 원익

인식의 변화를 불러온 모나리자 터치

원익은 지금 ❷ 씨엠에스랩

우리들의 리그, 핫여름의 스트라이크

원익은 지금 ❸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의 숙원, DS 연구동 완공

원익은 지금 ❹ 원익아이피에스

GEMiNi 100호 출하, 원익의 기술경쟁력을 상징하다

94 행복일터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다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축적의 시간, 스케일업 혁명

지난 4월 13일 원익아이피에스 대강당에서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축적의 시간, 스케일업(Scale Up)-아이디어를 혁신에 이르게 하는 축적의 과정>이란 주제로

성공적인 기업전략의 조건과 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역량 강화에 대해 강연해 큰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이정동 교수의 특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정동 교수 <축적의 시간> 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기술 경영 / 기술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개념설계 역량이 없다’

우리의 굴지 기업인 삼성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하고, 롯데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제2롯데월드를 지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건축-토목-구조(개념) 설계’는 모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기업들이 맡고, 설계와 구매, 시공에도 이들이 지정한 자재를 써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쉽게 말해 건설에 필요한 핵심조건 대부분을 선진국 기업들의 요구에 충족해야만 했던 것, 즉 개념설계는 국내 기업들의 역량으로는 아직 한계임을 여실히 증명한 사례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경제력에서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왜 아직도 낮은 과학기술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한 조선·철강·자동차·화학산업 등은 최근 역성장세를 보이고, 앞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유는 바로 ‘개념설계 역량’의 부족에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는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개념설계는 ‘Originals(특허를 개발한 기업)’, ‘Licensor(특허를 제공하는 기업)’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제2롯데월드를 짓는 핵심기술인 초고층 건축설계(KPF), 위성측량(Leica), 구조설계(LERA), ACS(DOKA), 토목설계(Arup), 풍통(RWDI), 커튼월(릭실), 컨설팅(CDC) 등 이런 바 돈이 되는 밑그림은 모두 선진국 기업들이 담당했다. 심지어 우리 첨단기술력의 상징인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운영체제는 미국 기업인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시장의 75%대를 차지하고 있다.



개념설계를 여는 열쇠, ‘스케일업’

제조업 강국 한국이 핵심부품, 설계역량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와 기업들이 착각했던 것-개념설계는 사오면 되고,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은 우리의 제조(생산)공장이라고 생각한 것에 있었다. 그러한 착각에서 우리 기업들은 값진 세월을 허려보냈고, 고통스러운 시행착오의 축적과정을 통해 스케일업을 쌓는 것에 대해 철저히 무시했다.

먼저 매뉴얼과 교과서에 의존하며 새로이 업데이트하는 일에 게을리했다. 또 경험과 기억을 가진 정통의 고수(과학기술자)를 훌대했다. 혁신기업 다이슨의 사례처럼, 진공청소기에서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드는데 5,127회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끊임없는 차이의 축적을 하려는 자세를 가진 기업가가 없었다. 그 사이에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일변도가 제도화됐다.

중요한 것은 개념설계는 아이디어와 스케일업이 결합할 때 얻어지는 산물이라는 점이다. 사실 스케일업이 아이디어보다 훨씬 중요하다. 현시대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과연 5천 번 넘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스케일업이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블루오션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몇몇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대 엔진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람다 엔진이나 삼성전자의 D램은 10년 이상 무수히 많은 실행과 실패, 개선을 통해 창출된 결과다.

오늘날, 현대화된 산업사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적이라 불리는 것도 결국 스케일업으로 다져진 내재화된 결과물이다. 현재의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타 기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다고 믿지 말고,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쌓아가야 한다. **W**

스케일업(Scale Up)이란?

실험장치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제조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장치를 만드는 등, 장치나 프로세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로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성과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다.



특강
밀줄 궂기

“혁신적 제품이 되었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건,
반드시 현장을 엎에 두고, 직접 적용해보고, 시행착오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밀그림을 고치는 반복적 순환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개념설계가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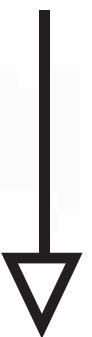


“기적은 착시다.
한국산업의 기적적 성공은 기적이 아니라,
탁월한 실행 역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바로 그 실행 역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금껏 한국산업이라는 로켓을 힘차게 밀어 올렸던
바로 그 1단 엔진이 아직도 분리되지 않은 채,
한국산업의 2단계 발진을 가로막고 있다.”

“혁신적 개념설계에 도전하다 보면 실패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기업이나 사회는 흔히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의사결정을 하기 쉽다.
그러나 안전지대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금세 정체와 후퇴라는 늪과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런 상황을 탈출하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혁신이 왕성한
조직과 사회의 모습을 스스로의 비전으로 삼고, 거기에 맞추어 모두가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도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진정한 혁신의 리더라고 부른다.”



UPGRADE



UPGREAT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를 유지하라.

혹시 ‘브랜드 마케팅’이란 말을 아는가? 브랜드 마케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덕트 마케팅(Product Marketing)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프로덕트 마케팅이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건다면, 브랜드 마케팅은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로 승부를 건다. 즉, 브랜드 마케팅은 얼마나 자사의 브랜드가 경쟁사의 브랜드보다 고객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큰 사랑을 받는가에 따라 승부가 매겨진다. 그래서 프로덕트는 공장(Factory)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Heart)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브랜드 마케팅은 흡사 연애의 패턴과 같다. 이를테면 그냥 알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품질 좋고 가격 착한 브랜드면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따스한 온도가 느껴지고 감성이 살아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21세기의 마케팅 환경은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좌우한다고 본다. 그것도 아날로그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대라고 규정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대에서는 브랜드가 고객과 함께 경험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고, 고객은 그저 브랜드 스토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고객은 우리의 브랜드에 관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원한다. 경험은 무엇보다 강력한 존재고, 경험을 대체할 수 마케팅 요소는 없다. 그러므로 진짜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고객들은 브랜드에게 끊임없이 스토리를 원한다. 고객의 취향은 유동적이며 늘상 변화한다. 따라서 브랜드에 있어서 정체와 지루함은 곧 소멸과 같다.



UPGRADE에서 UPGREAT로의 전환

화사한 봄날씨를 자랑하던 5월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경기창조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박재현 브랜드컴 대표의 명사특강이 개최됐다. <마케팅 트랜드 인사이트 전략-UPGRADE에서 UPGREAT로의 전환>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박 대표는 다양한 마케팅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최신 트랜드와 전략을 소개했다.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은 박 대표의 특강 내용을 소개한다.

마케팅 트랜드 인사이트 전략

박재현 대표

한양대학교영어교육학과
한양대학교이노베이션대학원문화콘텐츠학과
現) 한국브랜드마케팅연구소대표
現) 브랜딩컴공동대표

뻔하면 까인다! 스토리로 무장한 러브마크 브랜드가 돼라.

무엇이 뻔하고 무엇이 뻔하지 않다는 것일까? 내로라하는 브랜드 매니저나 마케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라면 고객의 실제 현장에서, 대화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어느 기업의 한 브랜드가 고객의 의견을 받으면, 단순히 브랜드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20세기 중반, 10대 기업집단에 속했던 기업 중 현재까지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과 LG 뿐이다.

경기 불황은 꽤나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경제·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소식은 드물지만, 그래도 우리는 브랜드 리마인딩(Brand Reminding) 전략에서 벗어나 브랜드 러빙(Brand Loving) 전략으로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고객들은 변하지 않고 지루하게 계속 곁에 있어주기 보다는 언제나 새로운 매력으로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브랜드를 찾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내어 어루만져주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까이지 않고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다. **W**



브랜드(BRAND)의 정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의미 있는 대상

브랜드의 정의를 면밀히 곱씹어보고, 적어도 한 번쯤은 되돌아보길 바란다. 우리가 보유하고 상표에 어떤 표시가 붙어 있는지, 혹시 ‘러브마크’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저 ‘트레이드마크’가 붙어 있는지 말이다. 상표 옆에 러브마크가 붙어 있어야 진정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강

입출국기

“브랜드는 하나의 상품으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는 고객과 끊임없는 연애를 해야 한다. 연애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 이왕이면 극적인 대화를 해야 사랑이 커지듯이 매력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21



“21세기 브랜드 마케팅은 제품·서비스가 아닌 인간에게 집중하는 시대다. 인간의 생각을 담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우선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고, 스스로 온도감을 가져야 한다. 즉 브랜드란 하나의 생물체와 같기 때문에 인간에게 감성적이고 따뜻한 존재가 되어야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고민 없이 트렌드만 추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브랜드 위치와 현존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킹핀(불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공으로 맞춰야 하는 5번 핀)을 맞춰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기본과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MonaLisa Touch 2018

비수술적인 치료로 안심, 높은 효과의 ‘모나리자 터치’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나리자터치(MonaLisa Touch)’는 최근 국내에 소개되어 여성 건강에 관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술로 인기가 높다. 특히 질건조증, 질염, 질위축증, 요실금 등 여성질환 치료 효과가 탁월해 수요가 점점 늘어가는 중이다. 지난 5월의 주말, 원익 주최로 글로벌 여성의학 전문가들이 ‘모나리자터치’에 대해 강연하고 참석자들과 자연스럽게 임상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주)원익 MonaLisa Touch 2018

인식의 변화를 불러온 모나리자 터치





여성질환 치료의 신기원,
모나리자 터치

여성질환은 평소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임상 사례 중에는 20대 초반에도 관련 질환이 생긴 예도 있고, 어린 연령대의 경우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특히 질건조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등은 보존적 치료로 모나리자터치(레이저 질성형)를 받아보는 게 좋다. 하지만 일부 여성질환 관련 광고 중에는 심각한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나쁜 이미지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19일,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열린 ‘모나리자터치(MonaLisa Touch) 2018’은 이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가 높아
주목을 끄는 모나리자터치**



처음으로 발표에 나선 사람은 이탈리아의 스텔파노 살바토레(Stefano Salvatore) 박사로, 모나리자터치에 사용되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이 아닌 최소침습적인 시술로 위축된 질 점막의 콜라겐 생성과 활성화를 촉진시켜 점막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잃었던 탄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시간이 10~20분 내외로 짧은데다 메스를 이용한 절개와 같은 과정이 없어서 부담감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신소애여성의원 박정원 원장이 나서서 ‘모나리자터치와 다양한 질타이트닝 레이저 임상 공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원장은 “부인과에서 CO2 프락셔널 레이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그 중 모나리자터치는 모든 여성질환에 사용 가능하고 효과도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직접 시술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개한 박 원장은 모나리자터치를 활용한 비수술적인 질성형의 효과에 대해 “전반적인 시술 경과가 수술 방법보다 좋고, 시술 후 회복도 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술 시 몇 가지 당부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더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시술할

때 온도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온도는 55~60°C 이하에서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항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노후에도 건강하게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폐경 및 생년기 이후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모나리자터치를 도입하는 병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강남베드로병원 길기현 원장이 ‘모나리자터치를 이용한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발생하는 고열을 이용한 하이푸(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시술법을 소개하고, 이어서 CO2 프락셔널 레이저의 특징인 최소한의 시술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길 원장은 강남베드로병원에서 시술한 모나리자터치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시술 후 6개월이 지난 190명의 고객(평균나이 43.4세)들의 시술 만족도가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만족도가 필요 없고 부작용이 적다는 점과,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운 것이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린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최소의 시술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술 만족도가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마취가 필요 없고 부작용이 적다.





임상 정보 교류를 통해 모나리자 터치의 확신을 얻다



국내외 전문가 세 명의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질의를 하며 모나리자터치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현했다. 수원에서 여성병원을 운영한다는 한 참가자는 “모나리자터치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봤지만, 오늘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빠른 시일에 모나리자터치를 도입해 환자

들에게 좋은 의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공유와 소통을 통해 알찬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단순한 의료기기 소개 차원을 넘어서 임상 사례와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W**



야구 장비가 낯설어도, 경기 규칙을 잘 몰라도
스포츠와 함께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서로서로 더욱 돈독해진 순간 속으로



62

우리들의 리그 핫여름의 스트라이크



씨엠에스랩
야구본데이



생생한 신세계 야구 체험

지난 5월 10일, 씨엠에스랩이 ‘야구의 날’ 행사를 열고 전 임직원 대상의 스크린 야구 체험과 더불어 프로야구 경기 관람도 함께 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스크린야구장에서 팀을 구성해 직접 야구 경기를 해보고, 저녁에 잠실야구장으로 이동해 LG트윈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실제 경기를 관람하는 일정이었다. 동료와 함께 ‘보는 야구’와 ‘하는 야구’를 함께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오후 3시 30분이 되자 씨엠에스랩 사우들이 스크린야구장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도착한 사우들은 야구 방망이며 헬멧 등 야구 장비를 만져보며 기대감 반 설렘 반이 섞인 웃음을 드러냈다. 홍승기 상무는 야구 방망 이를 들어보면서 “이거 꽤 무거운데?”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아직 전체 인원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스크린야구장 측의 배려로 한쪽 야구 부스를 열어 연습경기를 해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앞장선 것은 남자 사우들. 타

석 앞에 선 사우가 한껏 긴장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공에 깜짝 놀란다. 첫 공은 그렇게 보내고, 두 번째 공이 오자 잔뜩 움켜쥔 손으로 방망이를 힘껏 휘두른다. “딱!”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날아가고, 비록 결과는 땅볼 아웃이었지만 “두어 번 연습하면 제대로 맞을 수 있겠는데요?”라며 멋쩍게 웃는다.





스릴 돋는 맞짱, 팀대결

이윽고 실제 스크린야구 경기가 시작됐다. 사우들은 남녀 사원들로 이뤄진 혼성팀, 남자 사원들로 이뤄진 남성팀, 남자 사원과 여자 사원들로 이뤄진 남녀대결팀 등으로 팀을 짜고 각각 야구 부스로 들어갔다. 가장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혼성팀들의 경기였다. 프로야구팀인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두 팀이 맞붙은 한 혼성팀은 열정적인 응원을 더하며 실제 경기처럼 흥을 돋웠다. 상대팀의 헛스윙이나 소극적인

배팅에는 “우우~” 애교 섞인 야유(?)를 하기도 했다. 유은영 사우는 야구 방망 이를 처음 잡아본다는 여 사우에게 “배트를 조금 짧게 잡으면 좋다”며 응원했다. 노희석 사우는 “진짜 경기 같이 흥미진진하네요”라며 활짝 웃었다. 공을 쳐내기에 어림없던 스윙도 점차 맞아가기 시작하고, 각 팀의 응원 소리도 고조되어갔다. 한두 팀씩 경기가 종료되어 가고, 마지막 경기는 이날의 타격왕을 차지한 김승호 & 권수미 사우팀이

대미를 장식했다. 36안타를 몰아쳐 23점을 득점한 이 팀은 호쾌한 타격과 끈끈한 단결력으로 주목을 끌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권수미 사우는 “이래서 남자를 잘 골라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잠실야구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됐다. 몇몇 사우들은 아쉬운 마음인지 시구장에서 공을 던지며 남은 여운을 즐기기도 했다.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모두 같이 신나는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3,2,1
울~~
지대로네





내일은 우리 팀이 이길 것!

부쩍 길어진 해로 여전히 밝았던 저녁 6시, 씨엠에스랩 사우들이 잠실야구장 앞에 모였다. 한 장씩 입장티켓을 들고 많은 인파들을 헤치며 야구장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좌석에 앉았다. 아직 경기 시작 전이지만 홈런석 일부를 제외하고, 남은 좌석은 거의 찬 상태. 야구장에 처음 온 사우부터 이날 경기팀인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는 사우들도 오늘만큼은 한 자리에 나눠 앉았다. “플레이볼!” 6시 30분, 정확하게 경기가 시작됐다. 사우들은 햄버거와 콜라 등을 즐기며 야구경기에 몰두했다.

경기 분위기는 팽팽하게 흘러갔다. 롯데가 3점으로 앞서가자 LG도 2점으로 따라가며 경기장은 흡사 용광로처럼 뜨거

워졌다. 5회 즈음에 씨엠에스랩의 초청으로 고객사인 롯데백화점 임직원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사우들의 응원을 받으며 착석한 이들도 금세 응원전에 돌입해 흥미롭게 경기를 지켜봤다. 추가 점수 없이 ‘0’의 행진을 이어가자 가슴을 졸이던 사우들은 8회에 롯데가 대거 4점을 뽑아내자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하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남은 공격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한 LG가 그대로 패배하자 “안타는 더 많이 쳤는데, 운이 없었어요”라며 아쉬워한 LG 팬 사우에게, 롯데 팬인 사우는 “그래도 LG가 순위에서 앞서니, 내일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경기가 끝난 후 사우들은 귀가 방향이

비슷한 사우끼리 뭉쳐 지하철로 향하기도 하고, 일부는 조금 더 친목의 시간을 가져보겠다며 귀가 행렬에서 이탈(?) 하기도 했다. 사우들은 “야구를 실제로 해보고 선수들의 경기까지 볼 수 있었던 흔치 않은 기회였는데, 다음에도 이러한 콘셉트의 행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때까지 야구 연습을 해서 오늘의 패배를 극복하겠다는 사우도, 축구와 같은 종목으로 바꿔서 모두가 한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하는 사우도 있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다음의 설레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었던 유쾌한 시간이었다. **W**



핫여름 더위 날리고
홈런도 날리고~



원익의 숙원, DS 연구동 완공

원익아이피에스의 새로운 도약을 책임지며
연구개발의 기반이 될 DS 연구동이 완공됐다.
약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완성된
이 신축 건물은 원익아이피에스가 앞으로 이뤄갈
원천 기술의 국산화, 세계 최고 장비회사로 거듭나는
희망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 최고 도약이 시작될 원익인의

기술력의 산실, 터전 완성된다

원익아이피에스 DS 연구동 신축공사가 마무리됐다. 지상 4층, 연면적 4,325.76m² 규모의 이 건물은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2월에 기본 공사 완료 후 설비 보강공사를 마친 뒤 5월 4일 입주식을 가지게 됐다.

DS 연구동 신축 입주식

오전 10시 30분, DS 연구동의 완공을 기념하고, 입주를 축하하는 행사가 시작됐다. 바람이 이따금 불 뿐, 여느 날보다 쾌적한 날씨 속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현덕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DS 연구동 앞에 일렬로 늘어선 주요 인사들이 나란히 커팅 테이프를 자르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케이크를 커팅하자, 보고 있던 참석자들이 일제히 환호성과 큰 박수를 보냈다. 건물을 배경으로 단체 촬영을 하고나서 동료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셀프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날의 입주식이 얼마나 고대해왔던 일인지 여실히 증명해주기도 했다.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FAB 공간

참석자들은 잠시 서로 간 환담을 나눈 뒤, 이현덕 대표가 앞장선 가운데 DS 연구동 FAB 투어에 나섰다. DS 연구동 1·2층에 자리한 FAB의 일부 공간을 둘러보며 최신 설비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특히 클린룸의 안전 공간에서 공정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었다. 임직원과 인사들은 최첨단의 청결한 설비, 물샐 틈 없는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업무 효율성, 부서 간 협업을 꾀할 사무 공간

3·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는 여러 관련 부서 인원들이 한창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3층에는 공정개발팀을 비롯해 장비개발팀, 설비개발팀, 장비기술팀, PECVD TFT팀, 고객지원팀 등이 있었고, 4층에는 장비개발팀·장비기술팀 일부와 품질보증팀, 영업팀이 자리 잡았다. 각 부서가 한데 집중됨으로써 앞으로 부서 간 교류와 협업이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쾌적한 곳에서 업무 능력이 쑥쑥

이현덕 대표는 몇몇 직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불편함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임직원들은 입주식이 있기 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투어 일행의 순시에는 상관없다는 듯,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직원들 뒤로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흐뭇해하기도 했다. 휴게실과 회의실을 들어가 보고, 옥상에서 주변 환경을 살펴본 임직원들은 “이런 공간이라면 일할 맛 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신기술의 산실, 꿈의 희망이 될 DS 연구동

신규 반도체 제조 FAB에서 가스실(클린룸)을 점검하고 주요 공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현덕 대표는 “DS 연구동의 완공은 원의의 오랜 숙원이자 청사진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장비 메이커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넓고 깨끗한 환경에서 업무 역량을 발휘해 부단하게 성과를 채워가자”고 당부했다. 한편으로 공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의 행사는 DS 연구동에서 나와 본사 맞은편 쪽에 자리한 신규 구매 창고를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투어가 끝난 후 임직원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W**





GEMiNi 100호 출하, 원익의 기술경쟁력을 상징하다

원익아이피에스가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 주력 제품인 GEMiNi가 출시 2년 만에 100번째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일에 열린 100호 출하 기념식에는 여러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욱 의미를 더했다.



원익아이피에스 'GEMiNi' 100호기 출하 기념식



세계 최고의 PECVD 장비 GEMiNi, 명품으로 인정받다

5월 2일 오후 2시, 원익아이피에스 본사에서 진행된 GEMiNi 100호 출하 기념식에는 이현덕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결 같이 밝은 표정에서 이날의 순간을 얼마만큼 기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임직원들은 GEMiNi가 놓인 앞쪽에서 떡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이현덕 대표와 주요 임원들은 다함께 손을 마주잡고 포즈를 취했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돋웠다.

이현덕 대표는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단일 모델 100호 출시라는 의미는 기술력과 품질, 가격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 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2, 제3의 GEMiNi가 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100호에 이어 500호, 1천 호까지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큰 갈채를 받았다.

GEMiNi는 원익아이피에스의 주력 모델로, PECVD(플라즈마 화학 증착;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일본의 유수 경쟁사와의 기술 차별화 달성을 미세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장비개발을 목표로 신규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16년 초에 개발되어 즉시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GEMiNi는 소형화된 디바이스에서 우수한 균일성과 뛰어난 생산성을 갖춘 모델로서, 처리량이 매우 높고 비용 절감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문량이 몰려들고 있다. 그 결과 사상 최단기간 100호 출시라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현덕 대표는 “GEMiNi 출시를 기반 삼아 후속 개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EMiNi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을 약속하다

GEMiNi의 개발과 출시, 그동안의 판매 성과는 원익아이피에스 전 임직원들의 피땀이 어린 결과물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사와의 기술 전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을 획득하고자 했던 원익아이피에스는 각 부서 경력급 엔지니어들을 규합해 드림팀을 만들고,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GEMiNi 시제품을 만들었다. 자체 테스트를 통해 기술력에 확신을 얻은 개발팀, 그보다 더욱 이 제품을 반긴 곳은 고객사들이었다. GEMiNi 정보를 접한 고객사들은 서둘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때마침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수요가 늘어나 원익의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GEMiNi는 PECVD 시스템과 PEALD(Plasma-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PECVD의 경우 반도체 소자에서 절연물질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전체 막을 부드럽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며, 높은 생산성과 처리량으로 관리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게 한다.

PEALD의 경우 디바이스 노드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급 리소그래피 패터닝 공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돋는데,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는 ALD 시장에서 선도적인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원익아이피에스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PECVD) 부문 약 35~40%, 디스플레이(Dry Etcher) 부문 약 30%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W**



소통은 행복한 ‘대화의 시작’이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느낄 때, 소통이 잘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대화의 시작은 경청에서 비롯하는 게 아닐까. 바디랭귀지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원익큐엔씨 / 정지형 사원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

소통은 진정성에서 나온다. 배려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 비로소 마음이 열리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상대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닌지!

원익큐브 / 이지현 과장

WONIK GROUP

**소통은 곧 ‘즐거움’이다.**

어떤 직원과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 개인적인 대화도 편히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즐거움은 평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서서히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소통은 대화에 앞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커ücü이 쌓인 스토리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원익큐엔씨 / 김동현 과장

**말이 아닌 마음, 소통**

소통은 마음 그 자체다. 흔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지만, 말은 그 수단에 불과할 뿐 진정한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굳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게 소통 아닐까요.

원익큐브 / 김미선 과장

소통은 ‘공감’이다.

조직이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려면 구성원들이 목표와 계획에 대해 공감하고 진심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익머트리얼즈 / 김민식 대리



소통은 ‘보약’이다.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면 할수록 서로를 잘 알 수 있고, 서로를 잘 알면 알수록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원익머트리얼즈 / 김영민 대리

소통은 ‘인정’이다.

상대방을 틀렸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불가능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다.

원익머트리얼즈 / 강혁 상무

소통은 ‘관심’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해도 상대방과 공동 목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다.

원익큐엔씨 / 김진일 대리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야만 소통할 수 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 상호작용에서 비롯한 이해가 곧, 소통이다.

원익큐브 / 김보민 사원



소통은 ‘기다림’이다.

소통하려는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피상적인 대화만 이루어질 뿐이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원익큐엔씨 / 최석현 사원



NEWS FOCUS

SUMMER 2018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단합행사

원익홀딩스에 찾아온 NEW FACE [수시입사자]

원익홀딩스 제조본부 협력사 간담회

원익아이피에스

가족테마여행

탁구대회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계층별 리더십 교육』 실시

원익큐엔씨

원익큐엔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다채로운 기업문화 프로그램 시행

램프 특허 소송 전체 승소

원익테라세미콘

Culture day

Family day

중국 구안 분공사 설립

부서간 소통 간담회

원익머트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봄이 온다'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공채 3~4기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1박 2일!

씨엠에스랩

2018년 상반기 멘토링 웨스트

원익

2018 전사 단합대회 시행

원익투자파트너스

2018년 상반기 FUNDAY 행사

멘탈케어를 위한 힐링워크샵

원익큐브

하나되는 단합행사

하늘물빛정원

2018 하늘물빛정원 고객 노래자랑 개최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단합행사

지난 5월, 원익홀딩스는 임직원 함께 소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SITE별 행사를 진행하였다. 2개의 SITE별로 나눠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흥덕 사무실에서는 [Walk-Together], 지제 본사는 [Movie-Tonight]을 진행하였다. 흥덕에서 진행된 [walk-together]은 갑갑한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사무실 인근 산책로(3.5km)를 임직원이 함께 걷고 중간에 event spot을 준비하여 재미까지 동시에 제공하였다. 특히 조편성을 랜덤으로 진행하여, 그동안 인사만 했던 사이에서 좀 더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제본사의 Movie-Tonight은 인근 cgv 단체 입장권을 예약하여 [챔피언]을 관람하고 다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단체입장시 선착순으로 표를 배부하여, 임직원분들이 함께 앉아 옆사람과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번 행사의 경우, 홀딩스 임직원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가족도 함께할 수 있는 행사는 점에서 더 육 뜻깊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한 직원들은 “회사의 행사에 가족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으며,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해 회사의 좋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고, 다른 가족들은 “나도 원익홀딩스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가족참여형 행사를 자주 진행하여 원익홀딩스 임직원분들의 로열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에 찾아온 NEW FACE [수시입사자]

지난 5월 말, 원익홀딩스에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바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원익홀딩스의 수시입사자들이다. 기존에 하반기 공채와는 별도로 회사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20명의 신규인원이 원익홀딩스에 입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4주 간의 교육을 시작으로 원익홀딩스가 어떤 회사며, 본인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교육을 받은 입사자들은 “사내의 조직문화, 역할, 사업영역 및 방향성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부서 배치 전 교육을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 더 나아가 설계부터 제품출 하까지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본 교육과정을 마치며 진행한 대표이사님 및 소속부서 팀장님들과의 석식 간담회는 수시입사자들에게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대표이사님이 강조하신 [소통, 현장경영, 인재중시]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를 전했다.

앞으로 수시입사자들이 원익홀딩스에 무사히 적응하여,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제조본부 협력사 간담회

기구 배관업체 : 파코 주안 이안 네오테크 / 약 30명 / 14일

전장 업체 : 제타, JS, POP / 약 50명 / 21일

원익홀딩스 제조본부에서 2018년 6월 협력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기구 배관업체(4곳)와 전장업체(3곳)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조본부까지 포함하여 총 8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제조본부 내에서도 제조팀을 필수 참석으로 진행하여 제조팀 업무 수행시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본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클린룸에서는 방진복을 입고 있어서 협력사 분들이 일을 같이해도 어디 회사인지, 누군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원익홀딩스를 도와주고 계셨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협력사의 상황도 알 수 있고, 협력사가 하는 업무가 당사의 생산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대표이사님이 늘 강조하듯이 현대사회는 점점 [소통, 협업, 공생]이 중시되고 있는 것처럼 원익홀딩스 또한 협력사와의 [소통, 공생, 협업]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해 본다.



원익아이피에스

가족테마여행

날씨가 무척이나 화창했던 지난 5월, 원익IPS에서는 ‘2018년 가족테마여행’을 떠났다.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 가족테마여행은 바쁜 업무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기 어려운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 여행지는 ‘에버랜드’로 선정되었다. 그 동안의 가족테마여행지가 어린이들에게 맞춰진 장소여서 신청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전원에게 자유이용권을 지급하였고, 미혼인 직원들을 배려하여 커플/친구와 함께 참석 가능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혀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가장 전 간단한 사진 촬영을 마치고 에버랜드에서 각자 가족/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도체 2사업본부의 권석 부장은 “이번 여행지가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로 결정되어 처음으로 신청하였다. 앞으로도 장소 선정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였으면 좋겠다. 오늘 너무 즐거웠다”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에버랜드의 많은 놀이기구와 동물원, 퍼레이드 공연까지 보며 폐장시간까지 즐겼다는 직원들과 아이들의 지칠지 모르는 열정 때문에 힘들었다는 후일담까지 들렸다. 참석한 모두에게 소중한 여행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원익아이피에스

탁구대회

원익IPS의 연례행사인 탁구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흘간의 예선전, 이틀간 8강전. 치열했던 준결승전과 대망의 결승전까지. 올해 탁구대회는 신규입사자들의 대거 참석으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어 더욱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했다.

남자부 단식은 선행공정2팀 장재화 과장, 여자부 단식은 SEC영업팀 이영미 과장, 혼합 복식은 품질보증팀 정재훈 과장, 한별 사원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였다. 임원부 경기에서는 안성일 상무와 이주와 연구위원이 우승하였다. 올해 단식 우승자에게 20만원의 상품권과 트로피, 복식 우승팀에는 30만원의 상품권과 트로피가 시상되었고, 아쉽게 트로피를 놓진 준우승자에게도 15~20만원 상품권이 전달되었다. 매해 새롭게 등장하는 다크호스들과 사내 탁구장에서 틈틈히 즐기는 미니게임으로 본 경기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탁구 대회와 관련하여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남녀가 함께 즐기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 종목을 찾아야하는 인사팀과 한마음 근로자위원회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진행될지 기대할 만한 대목이다.



원익아이피에스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계층별 리더십 교육』 실시

원익아이피에스는 '17년도에 교육 고도화를 위해 리더십 역량 기반한 교육 체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임직원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게 되는 『계층별 리더십 교육』은 각 계층별 역할 이해 및 필요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금년에는 각 계층별로 교육 대상자(약 350명)를 선정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동원리더스아카데미 연수원에서 6월부터 총 12차수(1박2일)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직급별 역할 이해, 업무수행과 업무성과의 시너지를 위한 Skill-Up, 지속 가능 업무추진을 위한 Mind Power-Up(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챙김 명상교육), 성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실천 Action Plan으로 탄탄하게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인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챙김 명상 교육』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다시 뛰기 위한 에너지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생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타 부서 직원들과도 교육을 통해 부서간 이해 및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나의 Leadership 다짐” 액자를 교육생 전원에게 제공하여, 교육받은 동안 다짐한 실천 행동을 주기적으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본 교육은 원익아이피에스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각 계층별 역할과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원익큐엔씨

원익큐엔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원익큐엔씨는 지난 6월 25일,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새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지난 1월 선정계획을 발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분석,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굴 및 국민 추천을 통해 후보기업을 선별했다. 이후 현장조사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민간기업 93개, 공기업 7개)을 선정하였다.

원익큐엔씨는 높은 수준의 고용 창출을 달성하였다. 특히 근로자 중 청년 비중 40%, 최근 2년간 신규 채용자 중 청년 비중이 80%를 차지하여 청년 채용 부문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장애인, 탈북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으뜸기업에 선정되었다. 으뜸기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익큐엔씨는 1~3년간 신용평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150여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행사는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 관계자와 구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원익큐엔씨에서는 퀴즈영업본부 최현우 부사장이 참석하여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원익큐엔씨는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으뜸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며 자유, 소통, 행복의 가치가 실현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원익큐엔씨

다채로운 기업문화 프로그램 시행

원익큐엔씨는 어느새 찾아온 봄과 함께 본격적으로 2018년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여름 휴가를 주제로 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봄, 나, 꽃’이라는 주제로 사진콘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원익큐엔씨 사진 콘테스트는 주제에 맞는 사진을 촬영하여 그룹웨어 게시판에 게시하면, 댓글 및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15건의 사진이 접수되었으며, 영예의 1등은 요즘 핑크색에 풀 빠졌다는 딸과 함께 벚꽃 길에서 핑크색 커플룩을 맞춰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한 세라믹사업부 생산팀 이인규 기사가 차지했다. 이인규 기사의 사진은 봄 느낌 물씬 나는 색감과 분위기로 사업장을 불문하고 현장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초청 영화관람 행사를 진행하였다. 영화관람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영화 ‘독전’과 ‘피터래빗’을 상영하였다. 이날, 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약 35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익큐엔씨의 한 관계자는 “본 행사는 5년째 정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데 일과 후 부담없이 참석 할 수 있어 직원들과 가족들의 호응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에는 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 원익나눔회가 경북 고령군의 마늘밭에서 농촌 일손돕기 에 나섰다. 원익나눔회는 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원익큐엔씨의 사회봉사단으로, 농촌 봉사활동은 나눔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직원들 모두 회사에서의 모습은 던져버리고 밀짚모자를 쓴 농부가 되어 이른 아침부터 땀을뻘뻘 흘리며 마늘을 뽑았다. 이날은 특히 20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의외의 농사 실력을 보여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는 불판 위의 마늘 한 알도 소중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직원도 있어 웃음을 자아냈다. 참여한 직원들 모두 “몸은 힘들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하다”며 입을 모았다. 원익나눔회 이형길 회장은 “여러 사업부의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소통하니 더욱 의미 있는 듯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원익큐엔씨

램프 특허 소송 전체 승소

원익큐엔씨가 일본 기업의 특허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했다. 원익큐엔씨가 일본 우시오전기의 ‘엑시머 램프’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익큐엔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엑시머 램프와 관련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한 분쟁에서 우시오 측을 상대로 승소를 확정지은 바 있다.

원익큐엔씨는 2008년부터 램프 관련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14년부터 엑시머 램프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제품 국산화에 성공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다. 원익큐엔씨가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려던 시점인 2016년 3월 우시오전기가 원익큐엔씨의 특허 4건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며 공격을 해왔다. 원익큐엔씨는 이에 대응해 우시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우시오의 보유 특허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2016년 특허심판원의 심결 단계에서는 원익큐엔씨가 1대 3으로 패했다. 문제가 된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원익큐엔씨가 이겼을 뿐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우시오 측 주장이 옳다는 결정이 나왔다. 원익큐엔씨는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우시오의 특허보다 앞선 특허들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특허 4건에 대해 진행한 10건의 소송에서 4건 모두 원익큐엔씨의 완승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익큐엔씨 측 관계자는 “업계 1위 외국기업이 후발 국내업체를 특허로 공격하며 촉발된 사건이었다”며 “판결에 의해 외국기업의 특허가 무효가 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원익머트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봄이 온다’

따스한 봄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4월, 원익머트리얼즈는 점심시간을 약간 여유있게 이용하여 부서별로 삼삼오오 봄 꽃놀이를 다녀왔다.

이번 ‘봄이 온다’는 각 부서별로 자유롭게 계획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한 봄 나들이 행사로 직원들은 미리 다양한 도시락을 주문하여 근교(오창 호수공원, 청주 수암골, 청주 문암생태공원 등)로 떠났다. 도란도란 식사를 하고 나들이를 떠난 직원들은 잠시나마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다가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머트리얼즈는 4월 ‘봄이 온다’ 나들이를 시작으로 5월에는 체육대회, 6~7월에는 조직별 1박 2일 워크샵(하늘물빛정원 CAMPING TOGETHER), 월드컵 응원 등 자유, 소통, 행복을 실천하고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 및 행사들이 진행된다. 직원들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참여형 행사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양방향 소통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 및 운영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직원이 보다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익머트리얼즈를 기대해본다.



원익머트리얼즈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지난 5월, 머트리얼즈는 청주의 야외운동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오창, 전의, 판교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반가움과 즐거움이 배가 되어 체육대회가 시작되었고, 원익(경영지원본부), 자유(생산담당), 소통(기술/품질담당), 행복(영업/개발/안전) 4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풋살, 족구, 피구, 이어달리기, 단체 닭싸움 등 경기가 진행되었다.

업무에 임할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열정적인 참여와 뜨거운 호응속에서 행사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으며 한경기 한경기 끝날때마다 직원들의 아쉬운 탄식과 환호가 끊이지 않았고, 칭찬과 격려속에서 1등 생산담당(자유), 2등 기술/품질담당(소통), 3등 경영지원본부(원익), 4등 영업/개발/안전담당(행복) 순으로 한우성사장님의 시상식과 인사말을 끝으로 함께한 임직원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성황리에 체육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5월의 뜨겁고 즐거웠던 체육대회는 끝이 났지만, 체육대회로 신나게 즐긴 직원들! 열정적인 직원들이 함께하는 머트리얼즈의 희망찬 내일과 미래가 기대된다.

원익머트리얼즈

공채 3~4기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1박 2일!

원익머트리얼즈의 활력소 공채 3~4기 선후배가 1박 2일 단양여행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신입사원의 회사, 조직적응 및 한 단계 성장을 위한 Soft-Landing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공통점이 많은 선후배 사원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조기 전력화를 위해 리프레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떠난 행선지는 충북 단양으로 패러글라이딩, 강물 트래킹, 고수동굴 탐험 등 다양하고 알찬 일정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영백 사원(4기, 재무팀)은 “이번 소통행사를 통해 선후배 간 교류와 공통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다양한 사내 행사 참여를 통해 더 유연하게 선배님, 동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감사하며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직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화공 엔지니어를 꿈꾸며 원익머트리얼즈에 입사한 문상욱 사원(4기, 생산팀)은 특별히 멘토링 제도와 멘토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업무 내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잘 적응해온 만큼 앞으로도 선배님들께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여 공정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원익으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으며 긍지와 희망으로 일해 온 공채 3~4기 신입사원들. 업무 경험이나 팁을 알려주면서 회사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잘 따르며 돈독한 사이가 된 선후배 사원들, 아직은 사회초년생이지만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함께’라는 이름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이들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원익

2018 전사 단합대회 시행

2018년 6월 22일 경기도 장흥 일영유원지 내 한 펜션에서 (주)원익의 전사 단합대회가 시행되었다. 2018년 상반기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사내 분위기를 전환시켜 다가오는 하반기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야외 체육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펜션 운동장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회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백상천 대표이사의 격려 발언을 시작으로 단합대회는 시작되었다. 첫 경기는 조별 족구대회였다. 차분하게 시작한 초반과 달리 선수들의 파인플레이가 하나 둘 나올수록 경기의 몰입도가 강해졌다. 조별 두 명 이상의 선수 교체 규칙으로 남성 직원들은 한 번씩은 족구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선수 이외의 조원들은 그늘막 밑에서 시원한 맥주와 간식을 먹으며 각자의 조를 응원했다. 족구대회 다음 경기는 남녀 혼성 배드민턴 대회였다. 배드민턴 네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승부보다는 상호 간의 배려가 돋보이는 경기였다. 정오를 지나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기에 단합대회 일정을 단축시켜 단체경기를 진행했다. 이날 단합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합력을 볼 수 있는 단체줄넘기와 줄다리기였는데 특히 줄다리기는 심판이 튕겨져 나갈 정도의 열정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더운 날이었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습하지 않은 날씨 덕분에 단합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어서 개울가 평상에 늘어앉아 삼겹살과 삼계탕을 먹으며 체육활동으로 소모한 기력을 회복했다. 임직원이 모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2018년 하반기에 이변을 일으키는 (주)원익이 되자는 최화영 전무의 발언을 끝으로 짧지만 의미 있는 단합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원익큐브

하나되는 단합행사

지난 6월, 조치원에 위치한 흥의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날씨보다 더 열정적인 원익큐브 전사 단합 행사가 열렸다. 매년 1회 실시되는 본 행사는 판교 본사 직원 뿐만 아니라 진천공장, 양산물류센터, 여주물류센터, PnP지사 직원들도 모두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원익큐브에게 더욱 뜻 깊은 행사이다.

전 직원들이 행사 장소에 집합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1부 행사로 전문MC의 진행 하에 임직원들이 4개의 조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피구와 발야구 등 구기종목이 진행되었다. 모두 팀워크가 필요한 경기라 팀원들은 전략&전술을 짜고, 협의하면서 승부욕을 불태웠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명랑운동회가 진행되었다. 공굴리기, 이어달리기 등 모든 직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명랑운동회의 여러 가지 경기로 직원들의 집중도는 최고에 달하였다. 직원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저녁시간이 되어 연회장에서 뷔페식사를 하면서 우수사업부 및 체육대회 우승팀 포상 및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되었다. 청소기부터 토스트기, 그릇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하나씩 추첨될 때마다 탄식과 환호가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긴장감 넘쳤던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단합행사는 직원들에게 도심에서 벗어나 푸르른 나무와 파란 하늘 속에서 진정한 ‘Healing’을 맛 볼 수 있는 좋은 행사였으며,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던 타 지사 직원들과 소통하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 임직원에게 한 번 더 원익큐브 소속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원익테라세미콘

Culture day

원익테라세미콘은 영화 관람 행사이인 Culture day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Culture day를 상/하반기 2회 진행하면서 영화 스파이더맨과 토르를 임직원과 함께 관람한 바 있다. 올해 4월 27일에는 슈퍼 히어로들의 전통을 이어 어벤저스 인피니트 워를 동탄과 천안 펜타포트 CGV에서 관람하였다.

특히 이번 Culture day 행사에서는 많은 임직원이 모이는 자리이므로 특별 포상의 순서를 잠시 가졌다. 고객사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TF에게 대표이사가 직접 특별 포상금을 전달하여 격려와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더욱 즐거운 영화관람을 할 수 있었다.

Family day

지난 5월 19일 정기 가족 초청 행사이인 Family day를 진행했다.

한국민속촌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평소 많은 업무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직원들이 모처럼 전통 체험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도 가족과 함께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관람권, 식사 등 일체를 지원하여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민속촌 내에는 전통문화 관련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어린 자녀들이 특히 즐거워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민속촌 가까이에 살면서도 한 번도 방문을 해보지 못했는데 회사의 지원으로 와보니 볼거리도 많고 다양한 행사가 있어 기회가 되면 또 방문하고 싶다.”며 행복한 소감을 전해왔다.

원익테라세미콘

중국 구안 분공사 설립

원익테라세미콘은 원익그룹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있는 계열사이다.

지난 5월 25일 중국 구안현에 분공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또 한 번의 중국시장 개척의 역사를 써내렸다. 이번 분공사 설립이 특별한 이유는 그 동안 원익그룹 계열사들이 중국 남부지역에만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중국 북부지역에 진출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원익테라세미콘은 중국 하북성 랑팡시 구안현에 위치한 융구로부터 대형 수주를 받으면서 이번 분공사 설립을 결정하였다.

분공사는 원익테라세미콘 춘산 법인의 자회사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향후 구안 분공사가 이번 융구 수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거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북부지역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서간 소통 간담회

원익그룹의 핵심가치 중 하나는 소통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익테라세미콘은 6~7월에 걸쳐 부서간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무 접점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방식은 간담회에 앞서 상대 부서에 대한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공유하고, 간담회 당일 협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진행 순서는 업무 흐름에 맞춰 마케팅과 설계, 설계와 구매, 구매와 제조, 제조와 CS, 품질보증팀 순으로 약 20여개 팀이 참여하여 팀, 파트장 및 선임급으로 참석토록 하였다.

평소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니 간담회는 그 어느때보다 열띤 토론의 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갈등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이기에 가장 의미 있고 건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익테라세미콘은 향후 지속적으로 부서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여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씨엠에스랩

2018년 상반기 멘토링 퀘스트

지난 6월 씨엠에스랩에서는 ‘2018년 상반기 멘토링 퀘스트’가 진행되었다. 총 15쌍의 멘토 멘티 커플이 퀘스트에 참여하였다. 퀘스트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퀘스트 1은 ‘직무탐색’ 퀘스트로 멘토 멘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고충이 있는지 파악하는 퀘스트이다. 퀘스트 2는 ‘주변탐색’ 퀘스트로 멘토의 부서장, 멘티의 부서장, 멘토, 멘티가 함께 점심을 먹는 퀘스트이다. 퀘스트 1과 2를 완료하면 10만원이 적립되며 적립된 돈을 사용하여 퀘스트 3을 진행할 수 있다. 퀘스트 3은 ‘일상탐색’ 퀘스트로, 회사 밖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변지영 사원과 장서원 사원 커플은 퀘스트 3을 진행하기 위해 ‘뷰티 연구소’를 방문했다. 멘토인 변지영 사원은 “퀘스트 1,2를 진행하면서 멘티인 장서원 사원이 네일 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업무에 적응하느라 힘들 멘티를 위해 이 시간을 마련했다. 안마도 받고 페디큐어도 받으면서 장서원 사원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서원 사원은 이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페디큐어를 받게 되었다. 서로에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색을 추천해주며 서로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장서원 사원은 “변지영 선배님과는 같은 부문이지만 업무가 달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멘토링 퀘스트를 통해 선배님께 위로를 많이 받았다. 회사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2018년 하반기에도 멘토링 퀘스트가 진행된다. 멘토링 퀘스트를 통해 신규입사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



원익투자파트너스

2018년 상반기 FUNDAY 행사

2018.04.19.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상반기 FUNDAY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수사원 추천을 주제로 서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또는 감사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던 쟁쟁한 후보 가운데 SPC 업무를 훌륭하게 소화하신 오윤진 과장님의 2018 상반기 우수사원으로 뽑히셨습니다.

임직원들이 작성한 오윤진 과장님 우수사원 추천내용으로는 “해외 SPC 및 펀드결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기에 우수사원으로 추천합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특히 동료들과 잘 화합하며 지내고 있다”등과 같은 내용이 있었고, 모든 임직원분들도 이에 공감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후 간단한 간식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힘찬 업무 진행을 위한 다짐을 한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임직원들의 긍정적인 업무환경 구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

멘탈케어를 위한 힐링워크샵

원익투자파트너스는 6월 8~9일 동안 강릉에 위치한 메이플비치에서 2018년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 하였습니다. 첫날 관광 일정으로는 높은 산과 양, 젖소 등 목장 동물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삼양목장을 시작으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나고 살았던 오죽헌에 다녀왔습니다. 오죽헌에서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오죽헌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오천 원권의 뒷면 그림과 똑같은 위치에서 기념 단체사진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정을 소화한 후 숙소로 복귀하여 원익 투자파트너스의 단합을 목적으로 임직원이 함께하는 단합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단합이 잘 된 팀에게 주어지는 우승 상금 덕에 사기가 오른 팀원들의 열띤 응원 속에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작 전 몸풀기 게임으로 ‘만보기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팀별로 만보기 숫자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수가 나온 팀이 우승하는 룰입니다. 임직원들이 뽐내준 놀라운 춤 실력과 평소에는 보지 못한 모습으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그 후 본 게임에서는 ‘단체 제기차기’와 ‘그림으로 말해요’를 진행하였습니다. 높은 단합력을 요하는 어려운 게임 이였지만, 팀원들과 응원하고 도와준 덕분에 임직원들의 뛰어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헛발질하는 모습과 짧은 제한시간 안에 그린 다소 어설픈 그림은 임직원들을 웃음 짓게 하였습니다. 즐거웠던 단합대회가 끝나고 우승팀인 3조에게 우승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전임직원 모두가 어울려 즐겁게 게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입사하여 친해질 기회가 적었던 다른 본부끼리 섞여 팀을 이루고, 단체게임을 진행하면서 어느덧 어색했던 모습은 없어지고 친밀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임직원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전보다 단결된 원익투자파트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들의 사기충전과 회사를 더욱더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던 여행이었습니다.



하늘물빛정원

2018 하늘물빛정원 고객 노래자랑 개최

오는 가을 하늘물빛정원 고객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2018년 10월 20일 (토) 14:00~17:00 (예정)

매일 진행되는 라이브공연을 관람하면서 직접 무대에 오르고 싶은 고객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작된 이번 고객 노래자랑은 매주 토요일 예선을 통해 선정된 시상자들이 참가한다. 예선 시상자와 하늘물빛정원 고정 라이브 가수, 초대 가수 등 다양한 컨텐츠와 볼거리로 구성되며, 자연이 만발하는 가을 자연 속에서 참가자,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1등 시상자에게는 상금 1,000,000원이 제공되며, 이밖에도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방적인 컨텐츠 제공을 넘어서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더욱 뜻깊고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길 기대하며, 고객 가요제는 매년 가을 행사로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L70. 고민 피부를 위한 재발방지 솔루션

pH, 각질, 모공, 피지, 수분 5가지 피부 밸런스를 케어해 반복되는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셀퓨전씨의 트리악 라인



FINAL RESCUE

L70.은 반복되는 피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피부 전문가와 고민하여 얻은 셀퓨전씨의 기술 노하우를 담은 케어 코드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8~9월 생일을 맞으신 분
본인 or 주변인이 신청해 주세요.
찾아가 축하해 드립니다.

서프라이즈~ 축하드려요



터치미

주제 ‘단풍’에 맞게 연관된 나만의 추억,
사진과 코멘트를 보내주세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



맛있는 시간

밤낮없는 그대들을 위한 먹방 타임.
점수따고 싶을때, 고생하는 우리팀을 위해
신청하는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사원님 굿.

피자 or 샌드위치 or 치킨



t h a n k s f o r y o u



당첨자

참여자 -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

원익머트리얼즈 / 김수엽, 이동준, 박병배, 권효원, 이원복, 박범기, 박범기, 김영송, 엄인용, 박성균, 유재진
원익홀딩스 / 이상훈, 구찬희
씨엠에스랩 / 이재경, 변지영
원익큐엔씨 / 임창빈
원익아이피에스 / 맹채연
원익머트리얼즈 / 권오성

도시를 찾습니다 - 스타벅스 카페라떼 2매

원익홀딩스 / 소병호
/ 이상훈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 스타벅스 카페라떼 1매

원익홀딩스 / 이해린
/ 김혜문

사보와 한몸이 되라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매

씨엠에스랩 / 박지현



리더를 찾아라

우리 회사의 리더를 찾습니다.
‘우리 00님이야 말로 리더지?’
확신이 들면 추천해 주세요.
추천만 하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선정된 분께는 백화점상품권 10만원
추천인에게는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BOSS vs LEADER 코너에서
콩트로 각색하여 드립니다.

p r e s e n t

E D I T O R ’ S L E T T E R

원익인을 위한 선물이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만 남겨주셔도 선물 드립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원익인의 주인공입니다.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02-6674-7845 / 010-9011-5792

보내실 때 - 코너제목/ 이름/ 부서/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선물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시를 찾습니다

소개되었으면 하는 나라, 도시.
혹은, 내가 가본 세계를 추천해 주세요.
꼭 찍어만 주시면 편집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

WONIK WORLD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우리들의 덕후

매니아, 컬렉터, 애호가, 취미, 특기 등
그 속에서 찾은 행복을 함께 공유해요.
(문학, 예술 포함)

선정된 분께는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원익덕후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밥 한번 먹어요

임직원 간의 소통을 맛집을 통해 공유합니다.
같은 업무 외에는 만날 수 없지만,
사보를 통해 인맥도 쌓고,
몰랐던 분·아는 분과 더 가까워지는 식사 기회.
특별한 만남을 신청해 주세요.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보고픈 사람 신청,
나홀로 신청
대환영합니다.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원익인을 응원하는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선물이 찾아갑니다.

찾아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

55호에서 위 3개의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사보와 한몸이 되라

사보를 보셨다는 인증샷과 코멘트를 남겨
주시면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리오니다.
혼자도 좋고, 가족도 좋고, 명동이도
함께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보내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당신의
여름은
Strike!



